

**2020년도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공모 우수사례집**

2020. 11.

Contents

대 상

에메랄드 빛 희망

박혜란 / 홀리핸즈 1

금 상

자격증 그 이상의 가치

김효민 / 성신여자중학교 8

나를 바꾼 사건

김동혁 / 구미UT팀 16

은 상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초석이 되는 그날을 그리며

서동욱 / 경상남도교육청 24

전국 최연소 농업 분야 기술사 3관왕 도전기

안정재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29

기본의 힘

이정민 / 쌍용건설 36

동 상

끝나지 않은 도전

이다영 / - 41

국가기술자격으로 제2의 삶을 꿈꾸는 태양의 후예

김규태 / 육군 특수전사령부 48

내 인생경로의 나침반, 국가기술자격

이현민 / 현대자동차 54

안전관리자의 길을 열어준 국가기술자격증

이동욱 / 한국서부발전 59

자격증 도전으로 배움의 모범이 되는 교사

박성호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65

너비아니와 솔모르네

이영운 / 한국국제협력단 70



에메랄드빛 희망

박혜란 / 홀리핸즈



취업이라는 두 글자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두고 취업이라는 글자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주위 대학 동기들도 비슷한 심정인지 앞다투어 학교에서 운영하는 취업 강좌, 혹은 자기소개서 코칭, 취업 알선 프로그램 등에 등록하고 있었다. 다들 자신이라는 상품을 취업 시장에 선보이기 위한 포장 작업에 열심이었고, 나 역시 그들과 같은 불안감에 높은 수강신청 경쟁률을 뚫고 취업지원관련 과목 수강에 성공했지만, 강사가 이야기하는 고용시장의 냉혹한 현실에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 나는 기관에 어필할 만한 대외활동도 없었고 학점이 특출하게 좋은 편도 아니었기에 취업 강사와의 1:1 면담에서 자꾸 어깨가 좁아졌다. 내 태도가 애매하다고 생각했는지 강사는 취업을 할 생각은 정말 있는 거냐고 재차 물었지만 쉽사리 대답이 나오질 않았다.

사회복지학과 학생

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다. 사람들은 내가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던 고등학교 2학년 시절부터 대학 졸업반이 될 때까지 나의 전공을 두고 '전망이 좋은 과'라는 말을 마치 녹음기를 켜둔 것처럼 반복했다. 여성에게는 꽤 괜찮은 직업이며, 다른 직업들보다 벌이가 많지는 않아도 고용형태가 안정적인 것이라는 추측성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내게 과 선택을 잘 했다고 이야기 했다. 하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정부 방침도 점차 사회적 복지 서비스를 늘리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으니 완전 틀린 말도 아니었다. 사회복지공무원도 따로 채용하고 있어서 졸업한 선배들의 공무원직 합격 플래카드가 캠퍼스에 매년 걸리기도 했다. 일반 행정직과는 공부과목이 달라,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에게 유리한 면이 있었다.

맞지 않는 옷

하지만 나는 졸업에 필수인 두 번의 기관 실습을 마치고 나니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내게 맞지 않는 옷임을 깨닫고 말았다.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으나, 특히 사회복지사는 사명감이 없으면 일을 지속하기가 힘든 직업이었다. 클라이언트(사회복지대상자)를 위해 움직여야 하지만 너무 깊게 감정적으로 엮여 역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가끔은 정말 답을 찾을 수 없는 클라이언트의 사정 에 함께 좌절하여 번 아웃(소진)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했다.

적성과 맞지 않는 전공

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가족·집단·조직·지역사회·전체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운다.

대학교 1학년 때 학과에서 나누어준 사회복지사 선서가 적힌 종이를 볼 때마다 자신이 없어졌다.

나의 MBTI(성격유형검사)는 ENTP-A형, 애니어그램 검사는 3w4형으로 두 유형 모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과는 다소 맞지 않는 성향이다. 심지어 직업가이드에서는 ENTP형의 성격에 사회복지사가 어울리지 않는 직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으며 소위 예술가형이라고 불리는 애니어그램 3w4형 역시 사회복지 대상자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점을 스스로 깨닫고 나니 사회복지사로서의 취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분야에서 긴 시간 종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전공이 나의 성향과는 너무 달랐다.

25세, 다시 한번 진로탐색

당시 나의 나이는 25세였고,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아니라는 생각에 나는 과감히 사회복지사의 길을 뒤로 하기로 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 마다 직업적성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을 진행했다. 다시 진지하게 어떤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고, 삶을 영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필요하다면 직업학교를 진학하거나 필요한 강좌를 수강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니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아깝지 않느냐는 반응이었다. 한 친구가 내 고민에 대해 진지하게 자신의 취업 스토리를 이야기 해 주었다.

이 친구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2, 3년 먼저 취업에 성공하여 늘 용돈에 쪼들리는 학생인 우리들에게 밥을 잘 사던 녀석이었다. 친구는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분야가 자신과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하다, 졸업 후 용돈이라도 벌 목적으로 아버지 친구 분 소개로 건축 현장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엔 먼지 날리는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고되고, 일과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아

버님 친구 분께서 본격적으로 용접과 배관, 도면 보는 법 등을 가르쳐주셨고, 친구에게 소질이 있으니 함께 계속 일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함께 일을 하고 있다고.

친구의 용접사 권유

친구는 내게도 용접사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며 권했다.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다. 길을 지나다 간판이나 구조물 등을 설치할 때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빛을 내며 불꽃을 튀기는 그 일을 나보고 하란 말인가? 아무리 내가 평소 여자치고는 와일드한 면이 있고 힘도 조금 센 편이지만 무리가 있지, 하고 농담처럼 친구에게 돈은 많이 벌겠다 하니 친구가 용접사의 평균 일당을 알려주었다. 개인 역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기본 일당이 꽤 높은 편이었다. 친구는 꼭 건축현장이 아니어도 철강, 제조업 공장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용접기술이 두루 쓰인다고 덧붙이며 국비 지원과정도 알아보면 코스가 다양하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자신도 본격적으로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딸 계획이라면서.

여자 용접사

그러면서 친구는 분명 흔하지는 않지만 용접사로서 일하는 여자들을 만나 본 적도 여러 번 있고, 조선소나 공장에서도 용접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분들도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자신도 처음엔 그 분야에 대해 사람들이 으레 가지는 선입견이 있었지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나이나 학력보다는 능력으로 평가하고 대우해주는 분위기가 장점이라는 말을 해주며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진심어린 조언을 해 주었다. 또한 금속과 금속이 눈앞에서 고열로 인해 액체로 변했다가 식으면서 서로 단단히 결합할 때나, 보이지 않는 곳 어딘가 자신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을 볼 때 어떤 재미를 느끼는 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며 지금 자신의 일에 만족도가 높다고 했다.

조사와 고민을 거듭하다

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나의 마음을 어느 샌가 ‘용접사’라는 단어가 꽂 채우고 있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많이 힘들지는 않을까? 무엇보다 여자인 나도 회사에서 채용 해 줄까 하는 걱정들도 잇따랐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하는 80퍼센트의 걱정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

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머리 싸매고 고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날부로 나는 용접사에 대해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 용접사가 되는 법이나, 용접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나 전망 등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했다. 안타깝게 끝이 난 대학교 생활처럼 스스로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과감하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시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아서 조사와 고민을 거듭했다.

무료지원 교육을 받다

그러다 조언을 해준 친구를 다시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친구가 특수용접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폴리텍대학교의 특수용접과에 대해 알려주었다. 국가육성산업분야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교육이 무료이고, 교육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증 획득에 필수인 이론 시험도 면제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멀면 기숙사도 신청 할 수 있으며 무려 교육수당까지 나온다는 것이 아닌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은 것처럼 기뻐하며 폴리텍대학교 특수용접과에 지원서를 냈고, 다행히 합격하여 1년 동안 용접 이론과 실습수업을 수료했다. 전체 인원 60여 명 중 5명만이 여성이었지만(이것도 보통 때는 2, 3명에 그친다고 했다) 우리는 나름대로 푹푹 뭉쳐 고군분투하였다. 처음엔 용접 스파터가 튀고 뽕 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그라인더에 지레 겁을 먹기도 했으나 차근차근 따라하니 크게 어려운 점도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첵첵 가스절단(금속을 절단하는 방법 중 하나)을 해내고, 용접기에 달린 다 쓴 아르곤가스를 능숙하게 교체하게 되었다.

한 달간의 실습

그렇게 1학기가 끝나고 짧은 여름 방학 때 나는 교수님의 소개로 기업체에 나가 1달 동안의 실습을 했다. 그곳은 압력용기, 열교환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특수용접으로 분류되는 아르곤용접 및 로봇 플라즈마 아크용접까지 두루 쓰이는 곳이었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용접 팀장으로 계시는 분께서는 실습생인 나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기술 전수를 아끼지 않으셨고, 한 달의 짧은 실습이 끝났을 때 나는 1년 전 과가 적성에 맞지 않아 방황하던 대학교 4학년 때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소가 외양간에 끌려가듯 의미 없는 공부를 억지로 했던 예전과는 태도가 전혀 달랐다. 하루하루 학교에서의 실습시간이 소중했고 교수님의 지도를 귀담아 듣는 학생이었으며, 다른 학생들도 그런 내게 격려와 응

원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소중한 인연과 자격증 취득

그곳에서 만난 나의 남편은 지금도 종종 그 때의 이야기를 한다. 열심히 눈을 빛내며 수업을 듣던 내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나의 열정이 자신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다고. 나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서. 나는 그렇게 특수용접과의 1년을 누구보다 값지게 보내며 특수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 학교에서 보낸 1년이 내 인생 중 가장 열정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지금도 종종 힘이 들 땐 그 때를 생각하면서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힘을 얻곤 한다.

우연히 만난 실습생

특수용접학과 실습시간에 우연히 나와 다른 과정의 실습생과 마주친 적이 있다. 5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 내게 필사적으로 용접기 만지는 법과 용접하는 방법, 자세 등에 대해 물어보셔서 나름 성심껏 답변해드렸더니 다음 날 과일 한 바구니를 가져다 주셨다. 그 이후에도 몇 번 그런 일종의 약식과외가 이루어졌고, 나중에 그 분은 건설현장에 취업하셔서 이전보다 좀 더 높은 몸값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내게 감사인사와 근사한 저녁을 대접해 주셨다. 안타깝게도 이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셔서 특수용접사 자격증은 따지 못하셨다며 다시 도전할 생각이라고 하셨다.

자격증 취득이 꼭 필수 관문인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이란 획득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인증서이자 노력의 증거이기에, 기업에서는 당연히 자격증 취득자에게 좀 더 점수를 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차별은 아니지만 자격증 취득자와 아닌 자의 대우가 다르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분도 자격증을 재차 취득하려고 노력하셨을 것이다.

졸업 후 취업

나는 특수용접학과 교육 이수 중 여름방학에 실습했던 기업과 인연이 되어 졸업 후 그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곳엔 이미 우리 학과를 졸업했던 선배가 있고, 열심히 나를 좋게 봐 주시던 팀장님이 계셔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이직했지만 마지막엔 직접 로봇용접기를 조종하여 가장 핵

심이라 부를만한 열교환기 탱크 몸체의 용접을 하기도 했다. 남편 역시 특수용접 기능사 및 용접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취업에 성공했고, 그 때 만났던 친구들은 우리에게 ‘부부 용접단’이라는 귀여운 별명을 붙여주었다.

열정의 온도

용접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온도임을 깨닫는다. 단단한 금속을 녹이기 위한 열은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안 된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면 구멍이 나고, 제대로 녹일 만큼 열이 나지 않으면 용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함이 생길 확률이 크다. 우리의 커리어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성향과 노력이 용착하여 비로소 직업으로 이어지려면 적당한 온도의 열정은 꼭 필요하다. 또한 그 온도에 맞는 목표와 그에 따른 속도계산도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본 에메랄드

용접을 할 때 쓰는 용접면에는 흑유리가 끼어 있다. 용접할 때 발생하는 밝은 빛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시광선을 차단해주는 물질로, 용접부위를 제대로 관찰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금속을 녹이기 위해 가하는 아크의 온도는 순간적으로 3000℃까지 올라간다. 거의 태양의 흑점에 가까운 온도다. 그 부분을 용접면을 쓴 채 흑 유리를 통해 보면 밝은 에메랄드빛으로 보인다. 결함이 없는 용접을 하려면 그 부분을 잘 보며 용융 풀(용접을 할 때, 아크열과 용적 따위로 인해 움푹 파이는 곳)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매일 그 아름다운 에메랄드빛을 보며 종종 나는 태양에 가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에메랄드빛 희망

만약 그 때 지금처럼 과감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전공을 살려 취업해서 사회복지사로서 필드에 나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종종 만나는 대학시절 친구들이 그러하듯 어떻게든 즐겁게 일을 하려 하겠지만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었을 것이다.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맞닥뜨리는 고충을 내게 토로할 때면 나는 그들에게 묻곤 한다. 너도 특수용접기능사 한 번 따 볼래? 이 한 마디가 예전 방황하던 나에게 동아줄처럼 내려왔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에메랄드빛 희망이 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자격증 그 이상의 가치

김호민 / 성신여자중학교



동아리에 활기를 불어준 관광통역안내사

‘전쟁으로 황폐해졌던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발달되었다는 것이 매우 놀랍다.’ ‘한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신기했다.’ ‘엄청 재미있었다.’

학생의 ‘엄청 재미있었다.’ 라는 말만큼 교사에게 성취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또 있을까? 지루하기 짝이 없던 나의 동아리 시간은 어느덧 흥미진진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고심했던 나의 동아리는, 적정 인원을 넘겨 더는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할 만큼 학교에서 인기 있는 동아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마법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만난 그 순간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

칠판과 같은 일상

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한 지 정확히 10년이 되자, 말로만 듣던 권태감이라는 단어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한 마디로 재미가 없었다. 맨날 보는 영어, 지긋지긋한 영어, 대체 왜 배워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는 영어. 학교급을 막론하고, 원서철 3학년의 영어 시간은 거의 빈 교실에 대고 라디오 틀어놓듯 하는 수준이다. 그걸 주 5일 수업에 6번씩 들으니 학생들이 얼마나 지겨울까.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놀렀다가는 바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다면 최근 뜨고 있는, 그 유명한, 활동 위주의 수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란 의견을 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작 활동 위주의 수업을 실행하면 또 시골벽적해져서 옆 반의 수업에 방해가 된다.

어떤 동아리를 만들까?

영어 수업시간에도 이런 식인데 하물며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동아리 수업은 설 명할 필요도 없이 분위기가 엉망이었다. 통상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교사 본인의 과목 특성에 맞춘 동아리를 개설하길 원한다. 이러니 영어 교사인 나의 선택지 자체는 그리 넓지 않았다. ‘영어 애니메이션반’을 개설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 학생들이 그저 애니메이션만 보고 있을 뿐 영어에는 도통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았다. ‘팝송반’을 개설하고 싶었는데, 회당 3시간이나 되는 동아리 시간에 주구장창 팝송만 여러 개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영어 에세이반’이나

‘영자신문반’을 하자니, 영어와 시사에 몹시 흥미가 있는 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동아리 가입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관광통역안내사를 접하다

‘난 아무래도 교사와 맞지 않는 것 같아. 일단은 정년까지 버텨보고, 은퇴하면 할 일이 마땅히 없을지 모르니까 자격증이라도 따 놓자. 기왕 딸 자격이라면 국가자격이 좋겠지?’ 국가자격의 종류를 알아보던 그 당시 나의 심정은 딱 이랬다. 웅대한 꿈과 숭고한 목표 등은 내 마음에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등학교 영어 교사 경력이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꽤 괜찮은 혜택이라 여겨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조사를 더 해보니, 많지는 않지만 의외로 몇몇 교사들이 이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심지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대비 문제집을 집필한 사람이 바로 현직 영어 교사라는 것도.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

그때부터 과감히 서점에서 필기 문제집을 구매하고 독학을 하기 시작했다. 살림하랴 아이 보랴 바쁜 와중에 필기까지 준비하려니 사실 꽤나 힘들었다. 필기는 네 과목이나 되었는데, 국사나 관광자원해설은 그 전에 알고 있던 내용들도 있어서 수월한 편이었지만 관광학개론과 관광법은 그다지 수월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말해 관광법은 포기했다가 다시 문제집 붙잡기를 여러 번 하였다. 10대 시절 수능을 준비하던 방식으로 문제집만 풀고 맞추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는 오답노트 만드는 작업을 반복했다. 오답노트 만드느라 얼마나 가위질과 풀칠을 많이 했는지, 손아귀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다. 물론 이건 내가 문제를 많이 틀린 탓에 정리할 게 그만큼 많아서였다. 틀린 문제들의 대부분은 당연하게도 관광법이었다.

평도 먹고 알도 먹고

필기 공부에 지친 와중에, 국내여행안내사도 동일한 과목들을 필기시험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차피 공부하는 거 그럼 국내여행안내사도 따자, 하는 마음에 공부도 미진한 주제에 용감하게 자격증 두 개를 한꺼번에 접수했다. 정말 필기시험 전날까지 내가 뭘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이런 짓을 하나 싶었지만, 막상 필기시험을 치르고 당일 오후 가채점 결과가 합격선에 든다는 걸 알게 되면서, 갑

자기 또 꼭 실기까지 붙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명색이 영어 교사인데, 영어로 말하는 시험을 포기하는 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다. 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일이 있을 때 나도 이렇게 극복했다고 할 만한 성공담이 있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제는 실기다

실기 날짜까지 시간은 너무 촉박한데, 양은 많고 그렇다고 전부 모범 답안을 외울 수도 없는지라 하나씩 해결해나갔다. 반드시 정보를 외워야만 하는 문화유산, 의견을 묻기도 하는 관광지식, 절차를 알아야 하는 가이드 실무 등으로 주제를 분류해서 그에 맞춘 말하기 양식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은 수첩에 주제와 키워드를 적은 뒤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다. 말하다가 막히면 수첩을 보고, 또 말하다가 막히면 수첩을 봤다. 늦은 밤 거실을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영어로 중얼중얼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앞 사람 머리 위를 보며 중얼중얼 하고, 길거리를 걸으면서 중얼중얼 했다. 누가 보면 그야말로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로 약 두 달간 매일 틈만 나면 말하기 연습을 했다.

문화홍보대사반 동아리 창설



우여곡절 끝에 관광통역안내사와 국내여행안내사를 모두 취득하자,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걸 그냥 썩히는 게 너무 아까웠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격증 공부한 내용을 내 평소 삶에 적용해보기로 했다. 먼저 새로 동아리를 만들었다. 서울 시내의 문화유산에 대해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을 영어로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아리이다.

처음에는 ‘문화홍보대사반’이라는 명칭으로 동아리를 개설했다가, 이후 ‘성신(근무하는 학교 이름)이 서울을 즐긴다’는 뜻의 ‘S.E.S(Sungshin Enjoys Seoul)’로 바꾸었다.

외국인 눈높이 맞춤 교육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하면,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기초정보를 영어로 배우게 된다. ‘역사’나 ‘한국지리’, ‘일반사회’ 등의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배우지만, 막상 대한민국의 인구, 면적, 길이와 같은 정보나 공휴일, 화폐의 인물 및 도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특히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는 더욱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들은 이런 걸 훨씬 궁금해 하는데도 말이다.

이 다음엔 대한민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해 영어로 배우게 된다. 2020년 현재 세계유산은 14개, 자연유산은 1개,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개, 기록유산은 16개 등재되어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세계인이 인정하는 문화유산이 많았다는 데에 벌써 학생들은 몹시 놀라는 눈치다. 기록유산에는 특히 근대유산도 소속되어 있어서,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부분을 학습할 때 아주 흥미를 가진다.

실습을 위한 문화유산 탐방

이렇게 기초지식을 쌓은 후 서울에 존재하는 문화유산 탐방을 나간다. 다행히도 학교가 서울 강북에 위치해 있어, 창덕궁, 종묘, 정릉 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근방이고 서울성곽은 걸어서도 갈 수 있다. 아울러 인사동, 북촌, 익선동, 서촌 등의 관광지가 가깝다. 학사일정에 따라 다른데, 시간이 여유로울 때는 지하철을 타고 코엑스와 선정릉, 봉은사, 롯데월드까지도 탐방한다.

탐방을 나가기 전에 학생들은 미리 영어로 문화유산 소개문을 써보고, 내가 문장을 수정하여 돌려주면 돌려받은 소개문을 들고 탐방하며 본인이 느끼고 경험한 대로 소개문을 고친다. 그리고 완성된 소개문을 연습하여, 나중에는 실제로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영어로 문화유산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남대문 시장에 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시장을 소개하는 영상도 촬영하였다.

인기만점 동아리

동아리 개설 첫 해, 성공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나서 다소 불안감이 들었다. 나는 교직을 시작한 초창기에 걸스카우트 담당이었는데, 선배들이 활동을 잘해주어도 후배들이 잘하지 못하거나, 선후배 간 사이가 나쁘거나, 신입 회원 모집이 어려워지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결국 걸스카우트를 해산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때문에 새로 만든 동아리도, 이처럼 첫 해는 잘 운영되었어도 그 뒤로는 반응



이 신통찮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웬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학생들은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 교실이 미어터지도록 나를 찾았다. 영어엔 관심 없는 학생들도, 동아리만큼은 성실하게 활동했다.

보람을 느끼다

작년에 활동했던 학생들도 올해에 이어서 활동을 하겠다고 찾아온다. 사실 그런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전에 탐방했던 곳을 못 가게 되는 탓에 내 입장에서선

상당히 귀찮다. 하지만 학생들은 탐방처가 겹쳐도 상관없으니 제발 또 받아달라고 성화다. 학생들로 미어터지는 교실에서 “하, 왜 이렇게 많이 와?”라는 나의 혼잣말에 “인기 있어서 그래요,” “선생님 재밌잖아요,”라고 학생들이 대답했을 때,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도 속으로 굉장히 뿌듯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반 이상 빈 교실을 바라보곤 소규모 수업이 더 편하다며 애써 위안을 삼았었기에.

자격증이 가져다 준 행복

나라는 사람 개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역량만으로는 효과적인 동아리 운영에 한계가 있다. 일례로 나 자신은 같이 있을 때 즐겁고 영어를 제법 하는 사람이더라도, 그런 내가 동아리를 단조롭게 운영하면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좋아도 그 동아리는 별로’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관광통역안내사는 나에게 혁신적인 동아리 운영을 가능케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동아리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재미있고 신이 난다. 동아리 수업을 교과 수업 못지않게 열과 성을 다 해서 준비하고, 학생들과 동아리 시간에 웃고 떠들고, 그러다보니 교과 수업에서도 그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흥미로운 수업이 될까 고심하게 된다.

코로나로 찾아온 동아리 위기!

2020년 초, 코로나19라는 힘센 불청객이 우리나라를 찾아왔고 탐방이 주된 활동이던 나의 동아리도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영상 수업에 맞추어 동아리 구성을 바꾸었다. 탐방을 나갈 수가 없는 큰 제약이 생겼지만, 대

신 영상으로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문화유산까지도 학습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콘텐츠를 기반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온라인 퀴즈를 마련했다. 그간 몰랐는데 문화재청, EBS 등에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을 정교하게 소개한 영상 자료가 놀랍게도 많았다. 그래픽태블릿과 전자펜 및 녹화 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문화유산 설명 영상을 촬영하고, 만들고 찾은 자료들을 탑재한 뒤 초조한 마음으로 온라인 동아리 수업 반응을 기다렸다.

성공적인 온라인 수업

반응은 정말 좋았다! 이 글 첫머리에 나열된 문장들은 현재 온라인 동아리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다. 학생들은 정말 고맙게도 온라인으로도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즐겁게 학습하고 있었다. 나 또한, 서울의 다른 어떤 문화유산 못지않게 찬란한 고려대장경과 장경판전, 불국사와 석굴암, 산지승원과 서원 등을 온라인을 통해 다룰 수 있어 몹시 행복하다. 가르치는 내가 학생들보다 더 들떠서 관심 있게 수업을 준비하는 상황이 다소 우습다. 집에만 오면 하도 나로부터 동아리 운영과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통에, 올해에는 남편이 관광통역안내사에 도전해 보겠다고 나섰다. 도대체 그게 무슨 자격증이기에 당신이 이렇게 난리냐며 궁금하다고 한다. 작년에 국내여행안내사는 이미 났다. 이러다가 부부가 모두 가이드로 나설 판이다.

안내사가 이제 필요없다고?

코로나 19 확산 사태로 인해 요즘 다들 우울하다. 사람들이 서로 간의 접촉을 기피하고, 이동을 최대한 하지 않다보니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아 끝이 보이지 않는 휴업을 감내하고 있다. 관광업계 자체의 존폐가 거론되는 이 마당에, 국내여행안내사나 관광통역안내사가 무슨 소용이겠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교사인 나에겐 당장 나의 직무에 아무런 필요 없는 자격증인데 뭐하러 이런 걸 땀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자격증 그 이상의 가치

하지만 자격증은 자격 취득 자체로만 의의를 가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고, 난관을 극복해가며 공부를 하고, 모르던 분야의

지식을 쌓게 되는 이 과정 자체가 나를 성장하게 하였다. 아울러 이 성장은 거꾸로 나의 본업을 혁신하게 하였고, 권태감을 넘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었다. 겉으로는 동일해보여도, 나는 자격증을 따기 전과 후의 내가 확연히 다르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다.

최종 목표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은 질곡의 세월을 거쳐 오면서도 그 빛과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 지금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 코로나 19 사태가 끝나면,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이 학습했던 장소들을 기억하여 실제로 방문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때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게 가치 있다고 했지,’ 하면서 내용도 되새기고,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외국인들에게 다가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위대한 유산을 소개하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풀뿌리 외교관’을 길러내는 것이 내 국가자격 취득의 최종 목표이다.



나를 바꾼 사건

김동혁 / 구미UT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을 향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저는 고졸 출신의 현장 직원입니다. 제가 굳이 고졸이라는 학력을 언급한 이유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 학력은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고졸과 대졸은 우선 구직 지원할 수 있는 분야 또는 범위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고, 이후 급여 등의 대우도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남들이 대학에서 4년을 더 공부한 만큼 현장에서 실무 경력을 아무리 더 쌓는다고 한들 그것이 사회에서 결코 동등하지 않음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국가자격증은 이런 학력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의 무기이자 그 분야에서 그 사람의 전문성을 바로 나타내어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바탕으로 제 사례를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 이 국가자격 취득자 수기 공모전 홍보문을 봤었지만, 왠지 쑥스러워서 응모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제 생각이 바뀌어서 혹시라도 저의 이 수기를 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국가자격증에 노력하는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수기를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떠맡은 안전관리업무

저는 약 18년 전 현장으로 입사하여 Pump, Fan, Motor류 등의 설비 유지관리·보수와 설비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열심히 선배들을 따라다니며, 업무적 지식 습득과 작업 역량을 강화하던 중 감독자의 지시로 안전관리 업무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안전은 사회 분위기적으로도 사실 뒷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 우선, 설비 가동률 향상 등 소위 ‘빨리 빨리’ 문화와 함께 기업의 이익 추구가 앞섰기에 안전은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내는 선진국처럼 안전, 보건, 환경 등을 생산보다 더 중요시하는 문화가 아니었고 안전 관리 업무는 상부 지시사항 및 법규사항인데다가 귀찮은 문서 업무 등도 많으니 나이 많은 선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제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안전관리 문화

당시 저와 함께 근무했던 선배들의 안전에 대한 마인드는 제가 안전한 현장 작업을 위해 안전 보호구를 챙기거나 착용하고 있으면 ‘어느 세월엔 작업하느냐, 여기 보호구 착용 실습 체험 나왔냐?’ 라는 식으로 나무라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희석된 화학물질이긴 하지만 35% 염산 탱크의 설비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선배들은 보호구 착용 하나 없이 맨손으로 염산에 손을 담그고 설비 고장을 빠르게 조치하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당연히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선배와 함께 높은 위치에서의 고소 작업을 할 때 제가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우선 안전한 위치를 확보하고, 주변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면 제 뒤에서 저를 난간 쪽으로 강하게 밀며 ‘떨어져도 안 죽는다. 빨리 작업 안할래!’라며 욕박지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목숨을 내놓고 근무하는 이런 선배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안전을 챙기는 제가 부서 내에서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상황이 되어 저도 그런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져만 가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업무

그저 형식적인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안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창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안전모·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했는지의 여부, 안전 작업 서류상의 서명은 누락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법적 안전 교육 시간 준수 여부 등 정말 기본 중의 기본만 확인했었습니다. 안전 관리 외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도 있고, 어차피 대충 해도 사고가 안 나는 이상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꾼 두 가지 사건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이런 마인드를 바꾸게 되는 두 사건이 직장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저와 함께 입사한 입사 동기 중 한 명이 안전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업무에 열정적이고 활발하여 저와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는 생산 설비 가동 정지 후 고장 부품의 보수 작업을 하던 중 그 사실을 모르던 그의 주변 동료가 설비를 가동시켜 손이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이 회복하여 정상적으로 생활 잘 하고 있지만, 그의 오른손은 이제 의수가 대신하고 있고, 본인도 그 날의 트라우마는 아직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 직장 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 산업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중요성을 깨닫다

비록 저의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이 두 사건을 겪은 이후 ‘저런 사건의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직장 동료들처럼 그렇게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소중한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안전 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전 관련 법규도 더 찾아보고 안전 점검 시 실적 챙기기 용도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안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나를 가로막은 전문성

저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안전 점검을 수행하여 작업자들의 안전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현장 안전 점검하는 안전 관리 업무 수행자인 저와 작업자인 그들과 전문성에 전혀 차이가 없는데, 현장에 와서 이것저것 지적하는 게 귀찮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작업 경험도 더 많으니 안전에 대한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말이 일단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 비해 안전 업무의 전문성이 더 있다고는 무엇으로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며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꼭 저들에게 내가 전문성이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에 도전하다

그 후 저의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여러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공인된 국가자격증이었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국가자격증을 검색하다가 그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지 그 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스, 소방, 산업안전, 건설, 산업위생, 인간공학 등등 많은 분야에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었지만, 그 중 산업 분야의 전반적 안전을 두루 다루는 산업안전기사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도전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니 고졸인 저도 실무 경력을 통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산업안전기사의 필기시험 접수 후 그 동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안전 지식은 그야말로 기초 중의 기초 수준이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역할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동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했었다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안전 업무를 수행하자는 생각으로 자격증 학습에 열심히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남들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기가 힘들었고, 며칠 동안 억지로 해보니 집중도 안 되고 피곤하기만 하여 공부 시간을 밤 시간대로 정했습니다. 저만의 규칙을 정했는데, 자녀들로부터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10시부터 12시까지 딱 두 시간만 학습하되 그 시간은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학습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의자에 앉아 있어도 졸이 쑤셔 침대에 엎드려서 책을 보다가 그냥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공부 방법도 몰라서 그냥 무식하게 처음부터 보다가 잠들면 그 다음 날엔 했던 부분을 또 처음부터 보다가 잠드는 비효율적인 학습의 연속이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마음은 조급해지고, 공부는 안 되는 상황에서 나름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퇴근 후 시간은 집에 가지 않고 집 근처 도서관에 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면 나태해지기 때문에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도서관이 문을 닫는 밤 11시에 집에 오는 것으로 규칙을 바꿨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스마트폰은 아예 꺼두고 학습에만 집중했는데, 학창시절 이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처음 봤을 땐 전혀 이해가 안 가던 내용들이 반복 학습을 꾸준히 한 덕분인지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2차 실기 시험에도 도전을 했는데 아쉽지도 않은 턱없이 부족한 점수로 불합격하였습니다. 학습 범위가 광범위하고 숙지할 내용이 많은데, 무식하게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다. 단순 암기식 학습 방법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인으로서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여 학습하기에는 단순 암기식이 그리 맞지 않는 것 같아 전략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성공적인 목차 학습법

여러 방법 검색 중 목차 학습법이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차를 보면 그 단원에서 학습하고 숙지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포괄적인 테마가 나오기 때문에 목차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학습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처럼 오답 노트 정리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작성 시간이 없어 과감하게 제외했었고, 목차만 보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있었는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학습한 결과 이후 실기시험에 합격하여 꿈에 그리던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감을 얻다

이후 내용에서 추가 서술하겠지만, 더 상위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증 취득 때보다 이때가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맛본 성공의 달콤한 열매인데다가 ‘나도 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전혀 늦지 않았다’라는 큰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후 내친 김에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에도 도전하였습니다. 직장 내에서 건물 증축, 신설 등의 건설 공사도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전문성 영역을 넓히기 위해 상기와 같은 학습 방법으로 열심히 학습하여 건설안전기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 취득

이렇게 두 가지의 안전 관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 더 욕심이 생기게 되어 더 상위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증에도 도전하여 위험물 기능장, 가스 기능장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장 자격증 두 개 취득을 위해 제가 쏟은 노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출퇴근 시간마저 학습에 활용하고 식사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암기한 내용을 되새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학습해서 취

득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저는 열심히 노력하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 달라진 점

제가 자격증 취득과 관련된 내용을 우선 서술했는데, 자격증 취득으로 직장 내에서 달라진 점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업무적으로 저를 대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국가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리고, 국가자격증 등급에 의한 차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선 국가자격증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작업자들은 제가 요청하는 정당한 안전 개선 요구를 전부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자격증 취득자가 관련 안전 규정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타당한 근거에 의한 개선 요청을 하니 반박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한 기사보다 더 상위 자격증인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점 또한 작업자들에게는 더 크게 와 닿는 것 같았습니다. 기능장이면 현장 기능 분야에서 최고인 만큼 그 무게감 또한 다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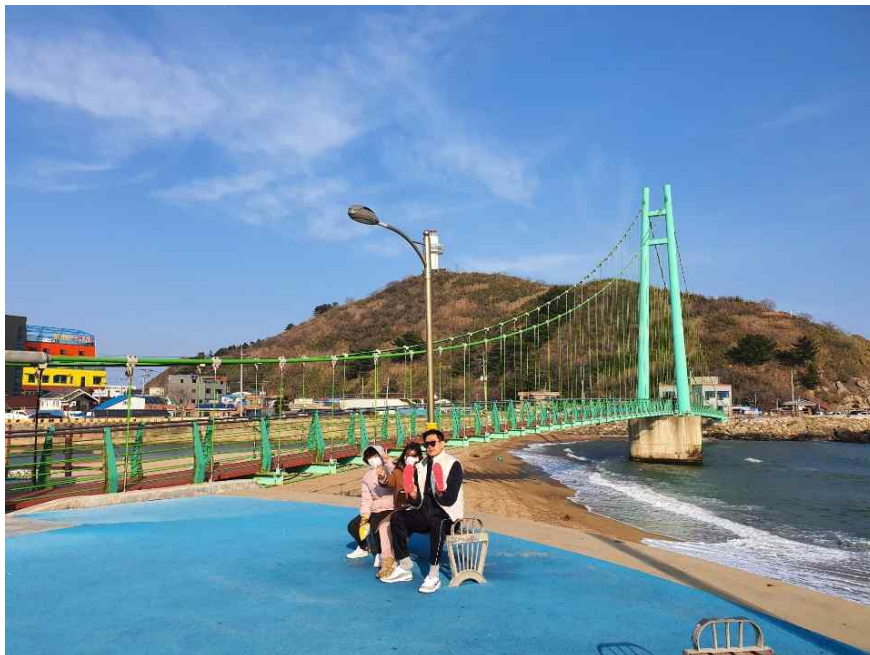
인정받은 노력

직장 내에서 이러한 저의 노력과 전문성을 높게 사준 덕분에 저는 법적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 국가에 등록되었고, 지금 저는 현장을 떠나 사무실에서 사무직들과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졸 출신인 제가 입사 초기만 해도 이런 그림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시작해서 현장에서 끝내는 그런 상황만을 생각했었습니다. 현장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은 다른 그림을 그려볼 생각조차 못했다고나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나는 고졸이니 그 학력에 맞게 그냥 그 정도 현실에 만족하겠다'라는 어떤 패배주의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무직 분들도 그 동안에 있었던 저의 노력과 취득 자격증에 대해 열정과 전문성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고, 저는 그 분들께 국가자격증 취득을 권장하여 올해 그 중 두 명이 기능장 자격증, 세 분이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향후 계획과 글을 마치며

저는 이제 최상위 자격증인 기술사 자격증에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공단의 자격증 시험일정 또한 많은 변경이

있어 도전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술사 자격증에 꼭 도전하려 합니다. 고졸 출신의 기술사가 되어 과거의 저처럼 현실에 그저 순응하고 포기하면서 생활하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지만 내가 노력하면 더 나은 미래는 분명히 찾아 올 겁니다. 그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에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차별 없는 국가자격증 제도를 꼭 추천합니다. 국가자격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가에게 주는 증서입니다. 이 국가자격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본인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취업, 승진, 포상 등 모든 분야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초석이 되는 그날을 그리며

서동욱 / 경상남도교육청



나는 초등학교에서 5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안전기획부의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교육 업무는 학교 전체의 안전을 총괄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을 보호하는 업무이다. 평소 안전에 관심이 많은 편인 나는 신문이나 TV에서 ‘학교안전사고’ 또는 ‘재난’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국가전문자격증인 소방안전교육사 취득을 결심했던 순간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1. 안전망

평화로운 학교. 어느 날. 수업 중인 교실의 전화벨 소리가 갑자기 요란스레 울렸다. ‘이상하다…. 보통 수업 중에는 전화가 잘 안 오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울리는 벨 소리가 나를 간절히 찾는 듯한 느낌이었다.

“네. 교사 서동욱입니다.”

수화기 건너편 목소리는 매우 다급했다.

“선생님! 지금 6학년 5반 교실로 빨리 가보세요! 교감선생님이 급히 찾으세요.”

나의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오늘 보건 선생님이 출장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아차. 이건 응급상황인 것 같다.’

반 아이들에게 6학년 교실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5층으로 내달렸다. 6학년 5반 교실에 도착하니 교실 한복판에 남학생이 쓰러져있었다. 알고 보니 보건 선생님이 출장 중인 상태라 교육청의 안전교육 강사인 나를 부른 것이었다. 여러 가지 안전교육 연수들을 이수하며 배운 내용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먼저 옆의 선생님에게 119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다.

“선생님 보이니? 보이면 눈을 깜박해봐.”

쓰러진 아이가 힘겹게 눈을 깜박였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라고 했다. 옆의 남자 선생님에게 심장 제세동기를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아이의 다리 아래 책가방을 넣어 다리의 높이를 올려주고 호흡을 확인했다. 호흡은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았다. 기도를 확보하여 숨쉬기 쉬운 자세로 만들어주고 체온 유지를 위해 옷을 덮어준 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옆에서 심장 제세동기를 켜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119 대원 분들이 도착했다. 학생은 무사히 이송되었고 교감선생님께서는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다.

“보건 선생님이 안 계셔서 당황했는데, 서 선생님이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그 남학생은 다음날 무사히 등교했다. 나는 그날 급히 뛰어가다가 예전에 인대

가 끊어졌던 발목을 다시 접질리고 말았다. 꽤 오랜 기간을 발목 통증 때문에 고생해야 했다. 그러나 그날 내가 느낀 보람은 발목 통증보다 더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열심히 나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여 내가 우리 학교의 안전망이 되겠다고. 그러나 안전교육 강사 연수만으로는 안전역량 강화에 부족함을 느낀 나는 국가에서 공인하는 안전자격증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2. 씨앗

안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도전하게 된 자격은 바로 소방안전교육사였다. 시험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되어 있고 1차는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소방학개론, 교육학개론 중 세 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2차는 국민안전교육 실무를 치르는 시험이었다. 이 시험을 통해 나의 안전역량을 더욱 강화할 생각으로 교재를 구입했다. 그리고 매일 퇴근 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 후 1시간은 식탁에 앉아 학습하는 시간으로 삼았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졸음이 몰려왔다. 퇴근 후 자투리 시간을 내어 공부하는 것이 참으로 버거웠고 교육학 전공자가 소방학개론과 응급처치론을 공부하자니 그 생소함에 다시 한 번 버거움을 느꼈다. 그렇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렇게 피로와의 힘든 싸움을 한 지 6개월. 드디어 시험 날이 다가왔다. 소방안전교육사는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금요일 퇴근 후 창원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흔들리는 어두운 기차 안에서 마지막 정리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다음 날, 최선을 다해 1차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예감했다. 이어서 2차 시험을 치렀으나 2차는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결국 내년의 시험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 해가 저물고 있었다.

#3. 열매

학교는 3월이 시작되면 정신없이 분주하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나른한 오후의 교실.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밀린 공문을 처리했다. 공문은 신기하다. 처리하고 나면 새로운 공문이 오고 이해해서 처리하고 나면 또 새로운 공문이 땀이 났으며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쯤 되면 주위를 둘러본다는 건 사치다. 피로가 몰려왔다. 얼핏 모니터 우측 편의 공문 중에 '제19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회 참여 신청' 알림 공문이 보였다. 불조심 어린이마당은 소방청과 화재보험협회가 주최하

는 화재안전대회로 매년 2만여 명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 대회이며 경남에서는 약 70여 개 학급이 참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애들아, 이 대회를 한번 준비해볼래?”

아이들의 의견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묘한 흥분과 함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대회 참여 신청 후 교재가 도착했고 매일 아이들과 하루에 5분씩 교재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교재의 난이도는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수업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다. 그때 잊고 있었던 소방안전교육사 2차 국민안전교육 실무가 문득 생각났다. 나도 아이들의 안전학습에 도움이 되고자 소방안전교육사 2차 과목인 국민안전교육 실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국민안전교육 실무의 내용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재의 내용이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익힌 안전교육원리를 수업에 적용하자 아이들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다. 그래서 나도 다시 힘을 내어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달간 아이들과 함께 안전에 대해 열심히 탐구하고 토론했다. 열정에 가득 찬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리고 대회 하루 전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의 12년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쏟아 부은 적이 있었니? 너희는 최선을 다했다. 수고 많았다. 그리고 너희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지킴이들이다.”

몇몇 아이들은 눈물이 그렇그렇해지며 울먹였다.

2019년 9월 5일. 여름방학마저 대회 준비에 대한 열정으로 하얗게 불태운 우리 반 아이들은 대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 결과는 경남의 73개 학급, 1,875명의 참여 학생 중 2위. 대회 첫 출전에 우수상 수상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교실은 감격으로 울음바다가 되었다. 나는 아이들의 멋진 모습을 신문에 영원히 남겨주고 싶어서 신문사 편집부마다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 후. 밝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이 신문에 실렸다. 너무 행복했다. 그리고 그동안 나도 많이 성장해 있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부를 다시 시작했던 소방안전교육사에 최종 합격하였으니 말이다.

교학상장(敎學相長):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성장함	
	
제19회 불조심어린이마당 아이들이 수상한 우수상 메달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취득한 소방안전교육사 합격증

#4. 나무가 되어

경남교육청은 안전교육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전국 최초로 교육청 직속 기관인 학생안전체험교육원을 설립하였기 때문이다. 경남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서는 교육학과 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하나 두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교사 또는 소방관은 매우 드물었다. 소방안전교육사 자격 취득을 통해 안전 분야 전문성을 갖춘 나는 학생들의 안전체험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된 셈이다.

더불어 경남교육청의 안전교육 위원으로 위촉되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개발, 자문 등 다양한 안전교육 관련 활동에도 참여하였다. 국가전문자격인 소방안전교육사를 취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리고 이 자격을 취득한 덕분에 소방안전교육사 수험교재를 출간할 수 있었고 다수의 소방본부와 소방서로부터 소방안전교육사 강의도 요청받았다. 국가전문자격증의 위력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한 해였다. 현재 나는 다양한 안전교육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교육에 기여하고 있음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끊임없이 안전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화재예방 안전교육을 위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화재감식평가기사 실기시험도 준비 중이다.

국가전문자격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부여해 준다. 평범한 교사였던 나에게 대한민국 안전교육의 초석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심어준 것은 국가전문자격이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다양한 자격 취득을 통해 더 큰 꿈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



전국 최연소 농업 분야 기술사 3관왕 도전기!

- 일년동안 농업 분야 기술사 3관왕을 꿈꾸다

안정재 /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



야, 나두 했어. 그러니까 너두 할 수 있어

사실 수기를 쓰겠다고 생각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제 진심이 왜곡되게 닿아 오히려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 진정성 있는 마음을 전해보고자 결심하게 된 것은 “야, 나두 했어, 그러니까 너두 할 수 있어”라는 광고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구는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 조정석씨가 선전하는 모 영어 학습 광고의 문구입니다. 2019년 연말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이 배우에게 영어로 짓궂은 질문을 하는 장난을 쳤었는데 예상과 달리 본인들과 별다르지 않은 영어 발음에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 의사 역할로 나온 그 배우의 발음이 원어민과 다르지 않아 대중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장면만을 위해 연습을 해 완벽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야, 나두 했어, 그러니까 너두 할 수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이 없었던 저란 사람도 해보니 되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인생의 진로를 바꿔준 자격증, 정보처리기사와 식물보호기사

농업이 전공이었지만 교직에 뜻이 있었던 저는 대학교 일학년 때부터 야학 교사를 하면서 교직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격증 시험을 쳤던 것이 생물 임용 고시에 필요한 가산점을 위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독학으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공부하였고 처음으로 취득한 자격증은 마치 금방이라도 시험에 합격하게 해 줄 것 같은 든든한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1남 4녀 중 4녀인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희 집에는 대학생이 세 명으로 늘었고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과학 강사와 수학 과외를 하며 학비·생활비를 버는 생활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학업의 능률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10만원짜리 월세 방에 살면서 보일러를 틀지 못한 겨울밤에는 저녁에 떠놓은 물이 콩콩 얼어버리는 가혹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삼 년의 실패를 겪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저는 다시 한 번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의 사가 ‘스승 師’ 자라며 하는 일 또한 교육의 업무가 많은 조교 선배님의 조언으로 진로를 다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즈음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타 큰 병원으로 이송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기반을 잡지 못한 자식이 노부의 병환을 겪을 때 느꼈던 경제적인 무력감은 지금도 마음의 한으로 깊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역경은 반드시 합격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든든한 자식이 되어 드려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로를 변경하기로 한 지 6개월 만에 ‘식물보호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인 60점으로 겨우 붙은 이 자격증은 그해 가을 공무원의 꿈을 이루어준 일등 공신이 되었고, 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입사 후에는 교육부서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업무를 맡으며 전공을 살릴 수 있으리라는 꿈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한 것도 잠시. 저는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농업인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은 제가 소홀히 공부했던 농업 전공의 내용이었고 농업에 관련된 지식이 너무 부족했던 저에게는 최고의 강사들이 출강하여 해주시는 강의도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두 명의 귀여운 아이 출산과 함께 육아휴직을 거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성으로 농화학기술사에 도전하다

실력은 전혀 늘지 않고 연차만 늘어서 돌아온 저는 복직 후 상담소로 발령을 받으며 뜻밖의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게 된 농업인 상담소는 농업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때로는 사랑방이 되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현장에 계신 농업인들을 직접 만나고 출장을 다니면서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즐겁고 퇴근하는 것이 아쉬워 주말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며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감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면서도 늘 저를 괴롭히는 마음의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것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보다도 연세가 많으신 농업인 분들은 제게 꼬박꼬박 소장님이라 불러주시고 작물의 병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이런 건 아직 잘 모르지? 그럼 본소

에 물어보고 좀 알려줘”라며 제가 서운해 하지 않도록 배려하며 따뜻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도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상담소 근무를 뒤로 하고, 다시 한 번 보직의 이동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본소에서 작물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해야 하는 보직이었습니다. 설레면서도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지도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필요한 책들을 읽고, 정리해 적으며 틈나는 대로 강의도 들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저도 해보겠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몹시도 괴롭혔습니다. 그때 저는 간절하면 모든 것이 스승이라는 생각에 부끄러움도 없이 모든 것에 도전해보고 실패 또한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정보 없이 농화학기술사 시험을 한 달 앞두고 필기시험을 등록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신 지인이 없어 조언을 구할 곳도 시험수요가 적다 보니 인터넷 강의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책과 기출문제를 번갈아 보는 고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업무를 하고 돌아와 아이들을 재워놓고 10시부터 새벽 1~2시까지 어떤 날은 새벽 4시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 때면 제게 따뜻한 격려를 해주시던 농업인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제가 모르는 것은 찾아 드릴 수 있을 정도. 딱 그 정도 능력만 갖추자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시험을 치르고 답안을 제출하고 나오면서 느꼈던 보람은 늘 자신감이 없고 주눅이 들었던 제 마음의 가뭄에 단비를 내려주는 것 같았고, 준비하는 과정만으로 보람 있었던 시험은 ‘119회 농화학기술사 최종합격’이라는 보답으로 돌아와 주었습니다. 필기와 면접 합격 날 시험 채점위원과 면접위원 분들이 어디 계신지 몰라 동서남북으로 절을 하는 것으로 제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씩 다가오는 성과, 종자기술사와 시설원예기술사

사실 농화학기술사 면접의 합격은 생각도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난 뒤 이 중에 딱 한 명이 떨어져야 한다면 그건 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면접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기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오면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면접은 비록 망쳤지만 나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 다른 공부를 시작해보자, 시험의 합격 여부를 떠나 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니 낙담으로 가득 차 먹구름이 잔뜩 끼었던 마음은 다시 맑아졌고 바로 다음 회인 종자기술사를 준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처음 종자기술사 교재를 펴보는 순간 정말 멍했습니다. 처음 보는 용어로 이해는커녕 한 페이지를 읽어 내리기도 쉽지 않았을 때 이대로 책을 덮어버릴까 고민했었던 것도 생생합니다. 그러나 곧 당혹감과 난감함은 몰랐던 것을 알아가는 성취감으로 바뀌었고 흥미가 생기자 공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기관지염으로 몹시 아팠던 저는 시험을 치러 갈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링거를 두 번씩 맞으면서도 회복되지 못한 몸을 이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 하나로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마지막 4교시 시험지를 제출하고 운전해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잡고 펄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팠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뿌듯함과 안도감이 몰려와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뜻밖에도 ‘120회 종자기술사 최종합격’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단기간에 두 개의 기술사를 취득하고 나니 농업 분야의 마지막 기술사 자격증인 시설원예기술사에도 도전할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일 년에 3번의 기술사 시험이 있는데 1년 동안 3개의 기술사 공부를 모두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체력도 많이 고갈되었고,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 업무와 가장 상관이 있고, 지금 당장 운영하는 사업에 이 모든 내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121회 시설원예기술사에 덜컥 원서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난관은 다름 아닌 코로나였습니다. 4월 11일 예정이었던 필기시험이 5월 9일로 밀리면서 종자기술사 면접과 불과 10일 차이밖에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부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고 두 과목을 병행하다 보니 머릿속이 혼란스러워 하나는 포기해야 하나 고민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와주신 것인지 ‘120회 종자기술사 최종합격’의 기쁜 소식과 함께 ‘121회 시설원예 기술사’ 필기 합격 소

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7월 21일, 마지막으로 시설원예기술사 면접을 보고 돌아와 최종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최종합격이란 좋은 결과가 있다면 일 년 만에 농업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3개나 딴 최연소 기술사가 되는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격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열했던 지난 일 년 동안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였고 그것이 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벌써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 취득으로 달라진 점

자격증 취득으로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불과 일 년 전만 해도 민원전화가 오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사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나서는 자신 있게 모르는 것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는 내용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찾아드리겠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차분히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가짐이 일 년 동안 세 개의 기술사를 준비하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인 것 같습니다.

또 현장에 나가 더 꼼꼼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농가를 방문해 살펴보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들어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과거의 제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짧아 크기가 균일하지 못한 체의 역할을 했었다고 한다면 그 동안의 노력으로 만든 지금의 견고한 체는 중요한 정보를 거르고 모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그래서 앞으로도 저만의 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었다면 제가 자신감을 가지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여 실무에 능통한 업무담당자가 되기 위한 노력도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시간도 쪼개 쓰면 유용할 수 있고, 해보지 않고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의 교훈은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헤쳐 나가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항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홀하게 대했던 사랑하는 아이들, 나의 배우자와 가족, 항상 격려해주신 직장동료 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늘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p>대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종자기술사 동시 합격</p> <p><small>A 조영준 기자 / 중 일력 2020.06.09 16:14 / 본 5장 9</small></p>  <p>안정재 농촌지도사</p> <p>안정재 농촌지도사는 지난해 11월 '농화학기술사'에 합격한 이후 반년만에 '종자기술사'를 취득해 대구시 최초 농업관련 기술사 2개를 지닌 지도사가 됐다.</p> <p>안정재 농촌지도사는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의 가장 기본인 종자분야를 통해 농촌지도사업에 열정과 경성을 쏟겠다"며 소감을 밝혔다.</p>	
<p>기술사 자격증 취득 보도자료(2020.6.9.)</p>	<p>전시용 작물 재배 모습</p>
<p><small>2020년도 신규농업인(귀농귀촌)교</small></p> <p>병해충 탐정</p> <p>고품질 채소 만들기</p> <p>- 해충편1 -</p>  <p><small>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small></p>	 <p><small>대구시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대구시 상동읍의 포도밭에서 주황날개 꽃매미 알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본 사진), 나무에 붙어 있는 주황날개 꽃매미 알 덩어리 (작은 사진), 프리랜서 공영</small></p>
<p>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자체 강사로 강의중</p>	<p>꽃매미 방제 봉사활동 보도자료</p>



기본의 힘

이정민 / 쌍용건설



길고 긴 터널을 뚫게 해준 기본의 힘

저는 2016년 5월 27일 건축기사에 합격하여 현재 쌍용건설 공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3년 전, 암흑 같은 취업시장의 문을 통과하게 해준 기사라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제 경험을 비추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글이 코로나19라는 취업 한파 속 취준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본기(건축기사)가 없는 돈키호테 취업준비생

무더위가 끝나고 슬슬 추위가 찾아왔던 2015년 늦가을, 건설 취업의 꽃인 하반기 공채가 시작되었다. 무난한 학점, 좋은 영어성적, 각 종 공모전 수상 및 인턴 경력까지...

탈락보다는 합격에 가까운 스펙을 만들어 놓은 나는 하반기 취업을 낙관하고 있었다. 역시나, 최종면접까지 무난히 올라갔고, 당당하게 면접을 보며 건축업에 몸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하지만, 최종면접의 양상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와는 반대로 흘러갔다. 면접을 보는 기업의 면접관은 기본기의 중요성을 지원자들에게 질문했다. ‘스펙이 괜찮으시네요. 그런데 건축기사가 없네요?’, ‘건축기사가 없는데 시공에 대한 실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등 나의 다른 장점보다 기본이 되는 건축기사의 자격증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건축기사정도 없어도 다른 스펙으로 취업문을 뚫어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나의 판단 착오였다. 면접관의 폐부를 찌르는 기본기에 대한 질문에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나의 첫 취업도전은 좌절만을 남긴 채 끝나가고 있었다.

건축기사라는 의미

패기 있게 도전한 취업시장에서 외면 받은 후, 혼자 있는 자취방에서 나를 뺏지 않았던 시공사 면접관들을 탓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그렇다면 나는 왜 뺏히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건축기사 책을 폈다.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구조, 법규까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들과 진배없는 과목들이라는 생각에 기사 시험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건 내 판단 착오였다는 사실을 기사를 공부하며 바로 느낄 수 있었다. 분명히 아는 내용이고, 배웠는데 왜 기출문제를 풀면 푸는 문제마다 틀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무조건 암기하면 되겠지 하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면 내 마음

을 반영하듯 시험지에선 오답의 빗줄기가 쏟아 내렸다. 나에게 건축기사란 자격증은 그저 취업을 위한 스펙의 일부분이라 생각했는데, 가벼운 통과예레라고 생각했던 기사라는 자격증의 무게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겁고 두터웠다. 그 순간, 너무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기본이 없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면접에 임했던 것이다. 사실을 깨달은 순간의 부끄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건축기사의 기본을 갖추기 위해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했던 날들

기사를 준비하며 내가 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무너지고, 겸손한 자세로 공부에 임하기 시작했다. 내가 준비했던 2016년 건축기사 시험은 필기 25.7%, 실기 31%의 합격률이었다. 필기, 실기를 합치면 100명 중 8명 남짓이 합격하는 꼴이었다.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내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이 자격증을 따지 못하는 것은 곧 내가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합격할 확률이 희박해짐을 의미했다. 학교 도서관에 매일 아침 8시 출근도장을 찍고 6개월 간 천천히 그리고 우직하게 시험을 준비했다. 혹자는 ‘단기간에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 된다, 벼락치기가 살 길이다’라고 옆에서 유혹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설령, 그렇게 공부해서 합격한 들 휘발되어 사라진 지식이 나에게 있어 뭐가 중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 더더욱 소처럼 시험내용을 씹고 또 씹어먹으며 공부했다.

제가 누구냐구요? 저는 건축기사입니다.

늦가을, 겨울 그리고 봄...

6개월간의 사투라면 사투라고 할 수 있는 기사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시험장 앞에 섰다.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 역시도 안 된다!’라는 마음은 오히려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교실에서 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적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감은 높아졌다. ‘기본이 이래서 중요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건축기사는 단순한 시험을 통과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닌 건축이라는 기본을 배우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던 것이었다. 시험이 끝나고 대망의 결과 발표일이 되었다. 합격의 유무보다 내 노력의 결실이 발표된다는 생각에 무조건 합격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한편으로 ‘혹여나 실수로 떨어졌으면 어떡하지?’라는 일말의 두려움이 들었다. 하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이었다. 이제 나는 건축기사가 되었다. 2017년 여름, 1년 6개월 전 취업시장

에서 기본이 부족하여 떨어졌던 지원자는 이젠 없었다.

건축기사로 사회의 일원이 되다.

건축기사라는 자격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바뀌었던 2017년 상반기 취업시장, 지금 일하게 된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다. 지원자들은 각자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을 화려하게 면접관들에게 어필하고 있었다. 나는 전날부터 어떤 면이 나를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인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문득, 나를 떨어뜨린 이 기본기를 면접관에게 어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이거다! 나는 기본기로 이 회사에 들어가겠다 다짐하며 면접장에 들어섰다. 무거운 면접장 분위기와 냉소적인 면접관들의 표정... 이 상황이 나를 취업으로 이끌 것이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당당하게 들어섰다. 으레하는 공통적인 질문은 ‘자기소개를 아주 간략하게 해주세요.’였다.



난 면접관에게 ‘전 건축기사 이정민입니다’라는 단답으로 대답하였고 반응은 사뭇 재미있었다. 당시 내 앞에 앉아 있었던 임원은 나에게 ‘왜 당신이 건축기사라고 생각하죠?’라고 질문하였다. ‘전 건축기사가 없어 취업시장에서 기본기 없다고 취급되던 지원자였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이론이지만 건축기사라는 자격증의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따라서, 아직 실무적으로는 건축기사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 과정을 나설 준비가 되었다. 당신들은 그렇기에 나를 뽑아야 한다.’라고 나를 어필하였다. 면접관들에게는 상당히 호전적인 답변이었고 나는 상기되어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순간 면접관 분위기가 싸해질 것이란 나의 예상은 빗나갔고 면접관들이 웃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지원

자를 이정민 건축기사라고 앞으로 부르면 되는 건가요?’라고 대답했고, 나는 재차 ‘그건 면접관님들이 현명하게 판단 해주십시오!’라고 나름 재치 있게 대답하였다.

면접은 끝났고 한 달 후, 나는 신입사원 교육장에 앉아있게 되었다. 이게 나의 취업의 끝이었다. 참 간단한 일이었는데 이 관문을 뚫기까지 근 2년이라는 시간

이 걸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기본기가 없으면 그 이상의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은 진리를 깨닫는데 꽤나 긴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이 경험이 인생에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이 글을 읽을 독자 역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기본에 충실하여 작금의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내기를 바란다.



끝나지 않은 도전

이다영 / -



빵을 직접 만들어 먹자

거의 2년 만에 느끼는 긴장감이었다. 아침 출근 시간대에 만원버스를 타고 영등포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마지막 직장이던 잡지사를 나온 뒤 오랜 만에 사회의 틈바구니에 끼어드는 서른일곱 여자에게 긴장과 미약한 설렘을 주었다. 더욱이 직장도 아닌 학원에 가는 길이니 그 복잡한 심경이야 이루 말할 수 있을까.



2017년까지 회사를 다니다 2019년 여름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을 위한 직업훈련을 시작했다. 시작은 빵을 좋아하시는 부모님과 직접 만든 빵을 같이 먹고 싶어서였다. 단팥빵과 카스테라를 좋아하시는 아빠와 빵집에서 항상 모카빵과 맘모스빵을 고르시던 엄마, 그리고 소시지빵을 우유와 즐겨 먹던 남동생과의 추억은 늘 나를 안락하게 해 주었다. 그렇게 단발성이 아닌 학원을 알아보다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사업이 직업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따도록 지원하며 취업하면 수당까지 지급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술을 배우면 정년이 따로 없고 내 실력과 숙련도만큼 인정받는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고민은 짧았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과기능장 경력의 원장이 직접 수업한다는 제과제빵학원에 다니게 되었다. 그렇게 제빵지식 제로 빵순이의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도전기가 시작된 것이다.

초보 제빵사, 자격증까지 도전

목표는 제과기능사와 제빵기능사 2개의 자격증. 수업은 초반 필기 이론을 배우고 제빵 25개 품목, 제과 26개를 한 번씩 실습하는 식이었다. 나는 5월에 먼저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온 터라 실기에 집중했다.

빵은 사서 먹을 줄만 알았던 나는 재료 계량부터 반죽기와 발효기, 오븐 사용법, 반죽과 발효, 분할, 둥글리기와 성형, 케이크 비중재기, 무늬 만들기과 마지막 완성품 품평에 이르는 긴 과정을 선생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칠 새라 필기하고 외우고 이해하는 수업이 매일 새로웠다. 내 손에서 유형의 무언가가 탄생한다는 게 더할 나위 없이 신기했고 이 공정을 능숙하게 해내는 전문가 선생님의 기

술력에 질문도 많아지고 존경심까지 생기게 됐다.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것은 실로 내 의지와 운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큼 공정을 이해하고 숙련도를 익히는지에 따라 나의 경쟁력이 생기는 순수의 영역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나날이었다.

실기 낙방의 충격, 다시 더 열심히 꼼꼼히

필기시험장에 가니 24살 첫 면접 때도 멀쩡하던 손이 긴장감에 덜덜 떨리고 턱끝이 아려왔다. 실기와 달리 필기는 다양한 분야의 응시자들이 모여 시험을 치르는데 PC 앞에 앉은 여러 응시생들을 보며 다들 꿈과 목표를 위해 이 긴장을 견디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안정됐던 것 같다. 필기시험은 등락 여부가 그 자리에서 가려진다. 어떤 문제를 맞고 틀렸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제빵과 제과 모두 86.6점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진 실기 준비. 총 51개의 공정과정과 주의점을 정리해둔 나만의 암기표는 지금 봐도 참 잘했다 싶다. 하지만 학생 때보다 세 번씩은 더 봐야 외워지는 게 고역이었다. 중간 중간 ‘이렇게 고생해도 자격증을 딸 수만 있다면’ 하는 막연한 기대와 훗날 현장에서 일하는 나를 상상하며 졸음을 쫓으려 애썼다.

실기는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첫 제과기능사 실기의 주인공은 바로 슈. 공정이 쉬운 편이라 쾌재를 불렀다. 그런데 자신이 과했는지 달걀로 점도를 맞추다가 1개를 더 넣고 말았다. 반죽이 되직해야 하는데 줄줄 흘러 패닝에 실패했고, 공간이 확보 안 되니 개수도 초과되고 슈의 생명인 부풀기가 안 됐다. 수업 때 완벽한 슈를 만들었던 터라 충격은 배로 다가왔다. 아니나 다를까 점수는 55점, 낙방이었다.

따로 연습도 못하고 수업 때의 손 기억만으로 공정을 외우려니 막막했으나 이 어려운 제과 실기를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다음에 꼭 붙자는 의지로 이미지트레이닝을 열심히 했다. 그림으로 표시하고 공중에 손동작을 해가며 단계를 꼼꼼히 익혔다. 정말이지 제과 실기는 세 번까지 보고 싶지 않았다.

잊지 못할 젤리롤케이크와 옥수수식빵

두 번째 제과 실기 품목은 젤리롤케이크였다. 비중을 재야 하니 반죽을 능숙하게 섞어야 하고, 케이크 무늬를 그리고 롤을 잘 마는 게 중요했다. 비중은 잘 나왔는데 무늬에 쓸 카라멜색소가 굳어서 그릴 때 애를 먹었다. 무늬가 반죽 바닥까지 가라앉으면 안 되는데 덩어리가 툭 하고 떨어지자 내 심장도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손을 덜덜 떨었으나 줄을 맞춰서 최선을 다해 무늬를 그렸고 케이크 색을 예쁘게 빼자는 생각으로 빵 색을 잘 관찰하고 침착하게 철판을 돌려 구웠다. 그리고



걱정했던 케이크 말기는 이미지트레이닝이 큰 도움이 되어 생각보다 수월하게 돼서 웃음까지 났다. 무늬 말고는 별다른 실수를 저지르지도, 문제가 생겼을 때 허둥대지 않고 나름의 해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자부하면서도 감독관들의 펜 끝에는 어떤 숫자가 적혔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발표날, 시험 감독관들은 점수를 깎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던 선생님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시험장 내 자리를 항상 청결히 하라던 당부에 반죽기의 묵은 먼지까지 닦았던 절박함이 제발 통하기를 바랐다. 확신 반 의심 반으로 큐넷 앱을 열자 떠오른 숫자는 63. 제과 실기 두 번째 도전만의 성공이었다. 고작 4점으로 당락이 판가름 나다니, 잠시 오싹함을 느낀 후에야 합격의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나를 떨어뜨린 슈는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좋아하지도 않았던 롤케이크는 평생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63은 합격을 알리는 수치에 불과했지만 내 눈에는 맨 앞에 1이 붙어 163점짜리 노력의 산물이라고 반짝이는 듯했다.

더 어렵다고 느꼈던 제과를 붙고 나니 제빵도 자신감이 붙었다. 발효 때문에 시험시간이 길어 중간에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제과가 섬세함을 요한다면 제빵은 반죽 상태를 파악하는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시험 품목은 옥수수식빵. 식빵류가 어려운 편은 아니나 기초가 얼마나 탄탄한지 완성품에서 금방 표시

가 나기 때문에 쉽게 볼 게 아니었다. 또 옥수수분말이 들어가 반죽이 질어 성형하기까지 꽤 까다로운 품목이다.

보통 1차발효는 30~40분을 잡는데 내 반죽은 도통 부풀 생각을 안 해 초조해졌다. 그냥 시간을 채우고 뺨까 하다가 ‘시간이 아닌 반죽 상태를 보고 빼라’던 선생님의 당부를 믿고, 시험 종료시간 5분 전에 오븐에서 뺄다는 계산을 역행해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해 보았다. 최대 1시간5분까지 1차발효에 할애할 수 있었기에 그 시간을 채운 후 보니 발효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꽤 부풀어 있었다. 차근차근 반죽을 무게에 맞게 분할하고 중간발효 후 모양을 만들어 다시 2차발효. 식빵틀 높이까지 반죽이 부풀어 올라야 하는데 이 또한 감감 무소식이었다. 다시 시간을 계산해야 했고 다른 응시생들이 오븐에 반죽을 넣고 누군가는 빵을 뒤집기도 하는데 나는 아직 발효실만 쳐다보고 있었다. ‘휘둘리지 말자’ 되뇌며 테이블을 다시 닦으며 마음을 다스렸다. 입술 안쪽을 곱씹으며 뜨거운 눈길을 보내던 나를 알아챘는지 반죽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기특하게도 3개의 봉우리가 비슷한 높이로 떠오르며 어여쁜 자태를 뽐내기까지 했다.



이제야 말이지만 그 빵 봉우리들을 보며 합격을 예감했다. 자칫 쉬워 보이지만 식빵 반죽을 성형할 때 힘의 세기를 일정하게 해야 하고, 4개의 틀에 각각 3개의 반죽을 넣은 후 같은 힘으로 꾹꾹 눌러줘야 일정한 봉우리가 솟을 수 있다. 오븐 안에서 반죽 안 열이 골고루 퍼져야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몰려 빵이 한 쪽만 터지는 괴이한 모양이 되는 것이다. 실기시험은 이론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어떻게 응용하는지 순간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감 5분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품을 내면서 내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었다.

예감은 좋았으나 마음은 놓을 수 없었다. 내가 잘했다면 다른 응시생들도 수월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허나 2019년 안에 자격증을 마무리하라는 계시였는지 67점이라는 점수가 나를 반겼다. 그 동안 내 낙방소식에 내색은 안 했지만 꽤 충격을 받으셨던 부모님께 합격소식으로 먼저 안심시켜 드렸다. 기분은 좋았는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많았다.

자격증은 실물로 내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지만 중요한 건 내가 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인가였다. 제과·제빵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 업종에서 일하는 게 자격증의 최종 도착지라고 여겼다. 설사 취직이 안 돼 집에서만 쓰게 될 기술이라도 시험장을 넘어 현장에서 써먹는 기술이 진짜 내 기술이라는 거다. 그렇기에 이 자격증은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준 셈이었다. 이제 나만의 오븐 앞에 설 때가 된 것이다.

끝나지 않은 도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첩형 자격증을 우편으로 받았다. 손바닥만 한 자격증 2개를 손에 들고 보니 수업부터 시험장에서 보낸 시간이 스욱 지나가며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격증을 획득한 지 7개월이 지난 현재, 나의 도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합격을 확인하고 이력서 자격증 란에 당당히 2개를 채울 때 희열을 느꼈다. 바로 구직사이트의 제과·제빵 항목에 구직 요청을 올릴 때에는 쉽지 않겠지만 잘해보자 마음을 먹었다. 아직 취업하진 못했으나 업계의 동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와 유명 베이커리, 그리고 크고 작은 빵집과 디저트카페 등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제과·제빵사를 구한다. 서울 강남구의 주5일 정규직 1명을 뽑는데 240명이 지원한 것을 보고 구직난을 실감했다. 자격증을 우대해주는 업체를 살펴봤더니 어느 신입·경력 제빵사 모집에 222명이 이력서를 낸 것을 보고 기함한 일이 있었다. 한 번은 새로 여는 제과점에 새식구로 지원했다가 15대1의 경쟁률을 뚫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고, 숙련도보다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일명 ‘빵공장’에 희망을 걸었다가 쓴맛을 본 기억도 있다.

허나 이 도전정신은 새로운 직장에서 내 기술과 꿈을 펼쳐보는 순간부터 또 다른 양상을 띠며 나를 숨 쉬게 할 것이다. 빵이 좋아 시작했던 일이 제빵사로 일할 자격을 얻게 해 준 것처럼 말이다. 더욱이 이 도전에 밀바탕이 돼 주고 이력서의 빈 칸을 채워준 국가자격증 덕분에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다. 내가 나를 자

랑스럽게 여기게 되었듯이 다른 이들도 국가자격증에 도전해 꿈을 향한 날갯짓에 공기를 불어넣는 원동력을 얻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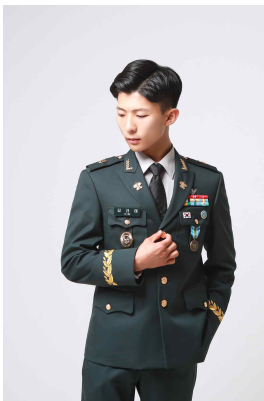
국가기술자격으로 제2의 삶을 꿈꾸는 태양의 후예

김규태 / 육군 특수전사령부



나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에서 국가를 수호하는 특전 부사관이다. 군인의 길을 걸으며 내 전문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알게 되고 잦은 훈련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격시험에 합격해 전문성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장병들에게 모범사례로 알려진 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전사가 된 이유



나는 처음부터 특전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남들처럼 대학교에 진학하여 일반적인 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평범한 학교생활 후 사회로 진출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대한 나는 훈련소의 낯선 환경과 고된 훈련 속에서 인생에 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막연하게 꿈만 꾸었던 특전부사관과 대학교 졸업 후 이어질 평범한 직장인의 삶, 이 두 선택지는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장 큰 고민이었다. 하지만 평생 ‘해볼걸’이라는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나는 706 특공연대로 자대 배치 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특전부사관에 지원하였다.

폭파 주특기 임관에 성공하다

특전사로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찾아보던 나는 내 전공학과인 화학공학과 가장 유사한 폭파 주특기가 있음과 더불어 군의 유사직종 경력으로 화약과 관련된 각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대한민국 최고 화약전문가가 되겠다는 포부를 안고 4개월간의 악명높은 특전부사관 양성과정을 이겨내어 2016년 12월 폭파 주특기로 임관에 성공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특전 요원으로서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다. 매일 이어지는 체력단련과 특공무술, 자격, 주특기 훈련과 하루가 멀다고 계속되는 야간훈련, 2~4주씩 이어지는 각종 전술훈련으로 몸은 매일 녹초가 되었고 초임 부사관으로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야 했기에 임관 후 1년간은 정말 부대활동 외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자기 계발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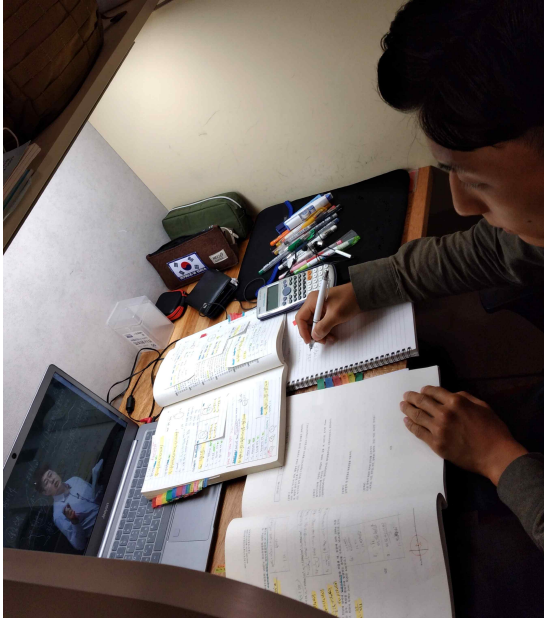
시간이 흐르며 체력은 물론 주특기, 전술 등 전투력이 향상되고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능력을 인정받아 특전요원으로서의 안정감을 찾게 된 나는 연차별로 취득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자기 계발 5개년’ 계획. 내 군경력으로 응시 가능한 자격은 위험물과 화약류 관리, 화약류 제조 이 3개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받아 유사직종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장기복무를 희망하지 않던 나로서는 전역일까지 순수 군경력만으로는 실무경력이 부족하여 기사등급을 취득할 수 없었고 기사 자격을 위해서는 임관 후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을 1년을 더 채우는 방법밖에 없었다. 여유가 없음을 깨달은 나는 연간 훈련 일정과 회차별 시험 종목, 그리고 과목별 예상 공부기간을 대조하며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종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첫 번째 목표 ‘화약류제조산업기사’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격시험은 ‘화약류제조산업기사’로 정했다. 화학공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소화할 수 있으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학을 1년만 다니고 군에 온 나로서는 아직 책장조차 만져보지 못한 2, 3학년 전공과목들이었고 입대한 지 2년이나 지나 기초 지식조차 가물가물한 상태였다.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결국 화공기사 단과과목의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였고 책까지 구매했지만, 막상 공부를 하려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더욱이 하루가 멀게 이어지는 야간훈련을 마치고 퇴근하면 21시가 넘었고, 고강도 체력단련과 훈련으로 몸도 마음도 피곤한데 처음 보는 용어와 이해할 수 없는 이론들에 지쳐 책상에서 책을 베개 삼아 쓰러지는 경우도 많았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노력

그렇게 몇 주가 지나니 차츰 공부하는 데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 부대에서 버스로 1시간 떨어진 시내의 독서실을 알아보았다. 가장 편안한 분위기를 가진 곳을 발견하여 주말이면 오전 8시에 독서실로 출발하여 삼시 세끼를 편의점 인스턴트식품과 밥버거 등으로 끼니를 해결한 후 시내버스가 끝길 때까지 공부하였고 집중이 잘 되는 날이면 만 원이 훌쩍 넘는 택시비를 지불해가며 독서실이 문을 닫을 때까지 공부하다 독신숙소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또한, 화약류 안전관리 관계법규를 정리한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도서관에서 법제처의 법률 전문을 프린트하여 꼬박 일주일간 정독하며 필요한 부분을 마킹하고 조항마다 하이퍼링크로 이어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각종 별표·별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달아주고 파일에 담아 자료를 직접 만들어가며 공부했다.

이동시간도 아깝다

그렇게 10개월을 열심히 준비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정말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부담감이 더욱 커져 독서실까지의 이동시간조차 공부에 전념하기 위하여 금요일 퇴근 직후 가방에 책과 함께 여분의 옷을 준비하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독서실이 마감하면 5분 거리의 찜질방에서 잠을 청하고 다음날 다시 독서실로 향하는, 즉 금요일 저녁에 나가 일요일 밤에 숙소로 복귀하는 극한의 수험생 모드로 돌입하였다. 실기시험 직전 관련 오프라인 강의를 발견하여 휴가를 내서 서울까지 올라가 유용한 정보를 얻어오기도 했다.

최종합격, 취득 후 얻은 것들

힘든 부대생활과 주말도 없이 하루하루 초췌해지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나의 일상을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개의치 않고 마지막 3차 시험까지 무사히 치러 19년 5월, 준비 1년여 만에 결국 내 생의 첫 국가기술자격인 ‘화약류제조산업기사’에 최종 합격할 수 있었다. 화약을 공부하며 특전폭파부사관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쌓게 되었고



이를 활용해 각종 실험과 데이터를 산출하며 군 폭파주특기분야 전투발전을 2건 제안하였고, 동시에 실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시각을 넓혀 전문성을 가진 부서관임을 입증하고 부대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계획대로 같은 해 ‘위험물산업기사’ 필기와 ‘화약취급기능사’ 필기까지 모두 합격하였다.

전역 후 나의 진로

하지만 자기 계발 계획을 이뤄갈수록 나의 전역일은 가까워졌고 또다시 전역 후의 삶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대로 화약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군인으로서 탄약을 관리하는 준사관을 준비할지, 군무원으로 전환하여 탄약을 관리할지, 아니면 민간기업에서 폭약을 다루는 엔지니어가 될지, 훈련병 시절보다 방향은 명확했지만 인생의 종착점이 갈리게 되니 더욱 많은 고민이 되었다. 그러던 중 특전사 선배들이 경찰특공대으로도 진출한다는 점과 함께 폭발물 분야로 내가 가진 경력과 자격증이 모두 인정되어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에 세부적으로 찾아본 결과 현재 내 자격으로는 폭발물처리반까지 갈 수 있지만 ‘화약류 관리 및 제조기사’까지 합격하면 폭발물 분석관으로서 폭발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목표 경찰특공대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나는 경찰특공대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였고 강력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후 운 좋게 찾아온 해외파병의 기회까지 쟁취하게 된 나는 현재 레바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국가외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과 동시에 귀국 후 치러질 ‘화약류 관리 및 제조기사’와 ‘위험물산업기사’의 마무리를 위해, 그리고 경찰특공대 폭발물 분석관이라는 또 다른 목표를 위해 이역만리 중동에서도 주경야독 공부하고 있다. 또한, 나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주위 동료들에게도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기계발과 경쟁력 있는 군인으로 거듭나기를 권하여 그들 또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고 함께 파병 중인 동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나의 지식과 자료들을 공유하며 이들의 성공까지 돕고 있다.

새로운 모습의 군인

학생이었다면 평범하고 당연했을 과정이지만, 군인으로서, 특히 특전요원으로서 수개월씩 산과 들에서 잠을 청하고 고된 훈련과 바쁜 일상 속에서 쉼 없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나의 이야기는 진취적인 군인의 모습으로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친 장병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내 인생경로의 나침반, 국가기술자격

이현민 / 현대자동차



들어가며

저에겐 국가기술자격증이 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자동차에 재직 중이며 일반기계기사 필기 합격 후 실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계기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격증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시작

제가 일찍이 자격증을 접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학교의 영향이 가장 큼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마이스터 고등학교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관심이 생겨 중3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 남들에겐 그저 '취업 잘 되는 학교' 정도의 인식이었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먼저 산업현장에 뛰어 들고 그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분야로 진학을 해서 업무 역량 등을 키운다.' 는 선 취업 후 진학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부모님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에 어머니는 선뜻 찬성하지 못하셨지만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가고 싶은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고 공대 출신인 아버지의 도움으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생활(순수한 학교 생활, 외국어, 견문)

학교생활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학교 교육방침에 따라 전공기초이론 공부와 말레이시아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등 외국어 공부를 하였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전공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심화적인 전공과정과 함께 일본의 중소기업체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고1 겨울방학부터 자격증을 준비했고 처음으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금형기능사 등 총 5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다행히도 좋은 성적으로 1학년을 마치고 현대자동차에 금형분야 교육생으로 선발 되었고 2~3학년 재학 중 방학을 통해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에서 금형기술을 비롯하여 자동차 공학, 인성 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현장 체험교육 등 조금 더 심화된 과정을 6개월간 이수했습니다.

자격증의 의미를 알게 되다.

현대자동차 기술교육원 교육을 마치고 군 입대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교육 중에 기술행정병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격증 가점을 활용하여 기술행정병으로 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입대를 하고 약 일 년 정도는 군 생활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군대에 적응하게 되었고 이제 조금 마음 편히 생활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때에 문득 어떤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습니다. 그 생각은 바로 ‘내가 지금까지 자격증을 따고 기업에서 교육을 받은 일들이 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었는데 내가 군 생활에 적응했다는 이유로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중단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이어져온 과정들이 결국은 제 미래를 위한 일들이었는데 여기에서 흐름에 맡겨버리면 앞서 거쳐 온 과정들이 일시정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체험 교육 때 현장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에 대해 알게 되었고 군대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을 실시하는 제도가 있다는 정보를 얻어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취득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모두 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제 스스로가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해를 충분히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준비해온 과정이었고 지게차운전기능사 부터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취득한 능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군 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 우연히 인터넷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금형관련 협착 사고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금형분야 교육생으로 훈련을 받았던 기업에서 금형 “협착사고”라니 느끼는 바가 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기술이며 이론이며 그렇게 많이 배웠으면서 막상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관심도가 매우 낮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스스로 반성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자연스레 산업 안전 분야로 시선이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무작정 이 분야에 대해 공부를 할 수는 없었고 어떤 척도가 필요했는데 그때 눈에 띄인 것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이었습니다. 지금

까지 기능사 등급의 자격증만 취득해본 저로서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산업안전산업기사 취득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유사분야경력 1년을 쌓으면 산업기사 응시자격이 생기고 저는 군 경력을 통해 이 조건을 만족하여 전역 후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현대자동차에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다이캐스팅 금형 제품 품질관리부서에서 정밀측정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품질관리 부서이다 보니 제품도면과 기본적인 소재 및 재료역학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관련해서 어떤 공부를 하면 적합할까 생각 하던 중 가장먼저 떠오른 것은 역시 자격증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역량들을 공부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이었고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유사직무 경력 1년으로 기사시험 응시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낀 즉시 공부를 시작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필기를 합격했고 실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의 목표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저로서는 산업기사를 따고자 했을 때, 기사 필기를 응시할 때도 솔직히 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하여 의문점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과 일반기계기사 필기를 합격한 지금 저는 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하나하나씩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스스로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졌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사 등급의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기사등급을 준비 중인 동기가 손에 꼽을 정도이고, 필기까지 합격한 것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시작은 수동적이었지만 처음으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를 취득했을 때의 성취감이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고, 나의 인생 경로 설계에 있어 국가기술자격증이 나침반이 되어 미래 목표 설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고 그게 또한 동기부여가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진학을 결심하게 했던 “선 취업, 후 진학”의 구호처럼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여 부족한 전공지식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제 업무와 관련된 기계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국가기술자격은 저에게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길을 열어준 국가기술자격증

이동욱 / 한국서부발전



저는 한국서부발전에 2006년 2월 입사하여 현재 안전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큐넷 공지사항에 자격취득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 및 직장내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사례문구에 문득 한줄기 빛이 되어준 소방설비기사(기계)로부터 시작된 힘들지만 뿌듯했던 취업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라 사연을 적어봅니다.

선택과 집중

저는 2004년 지방대 화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때 담당 교수님 소개로 소방시설공사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처음 소화기 점검만 하다 아파트에서 배관 피팅, 펌프 동작테스트 등 공사 보조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결한 배관에 수압을 걸어보고 조립한 펌프도 돌려 보는데 흥분되고 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인근 가스공사, 발전소에서도 소방 보조일을 하면서 나도 이런 곳에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 당시에도 취업은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대에다 전공이 순수 화학이라 두드릴 문은 아주 좁았습니다. 4학년때부터 중견기업에 무수히 많은 채용지원서를 냈지만 대부분 돌아오는 것은 불합격이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은 한곳도 서류조차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공기업은 토익점수와 자격증만 있으면 서류통과는 됐기에 공기업 중 에너지공기업으로 올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익점수는 어느 정도 획득했지만 문제는 자격증이었습니다.

가산점 때문에 안전관련자격증인 소방설비기사(기계)와 가스자격증은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해서 동영상 수강해서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화학뿐만 아니라 기계 과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학은 전공이라 금방 이해하고 암기했지만 문제는 기계였습니다. 동영상을 여러번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암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히 이해가 되어가면서 2번 낙방 후 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가스관련 공기업에서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화학직군 채용인원 0명'을 보고 벌써 합격된 거 마냥 기뻐했습니다. 밤잠 설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필기전형을 대비해 화학전공책과 가스자격증책을 수차례 보았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속담처럼 1차 필기전형, 2차 논술 및 인·적성검사를 거쳐 3차 면접까지 가게 되

었습니다. 면접날 정장차림으로 대기실에서 옆사람과 얘기하는데 화학직군 면접생은 4명뿐이었습니다. 0명 뽑는다고 나와 있어 그래도 대략 8명 정도는 뽑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4명 중 2명은 떨어진다는 생각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게다가 대기하면서 나는 대화에서 모두들 수도권대학에 스펙도 저보다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눅이 들었고 준비한 예상질문이 처음부터 빗나가면서 답변을 버벅거렸습니다. 또한, 갈수록 면접관들이 압박질문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면접시간이 끝나고 정중히 인사하고 나오는데 직감적으로 ‘아, 떨어졌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으로 내려오는 버스안에서 첫술에 배부를 수 있냐 위로하듯 수없이 되뇌며 창가 너머 붉은 노을을 멍하니 봤던 기억이 납니다.

위로주 한잔 하면서 취업한 친구가 하는 말이 발전회사에 다니는 형이 있어 물어보니깐 지금은 대부분 에너지공기업들이 한참 건설단계라 운영단계에 필요한 화학직군은 뽑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근래 에너지 공기업들의 채용공고를 찾아보니 정말 화학직군으로 뽑는 인원은 얼마 되지 않거나 아예 뽑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기계직군과 전기직군은 두자리 숫자로 많았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날 밤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희망적인 소식에 도전을 계속하다

며칠을 낙담하는데 뉴스에서 흘러나온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다시 작은 희망을 주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수도권 인구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낙후한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목표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시 연령이 폐지되고 관련 자격증 취득시 학력규제가 완화됩니다.”

“관련 자격증 취득시 학력규제가 완화됩니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기계직군으로 시험보자 결심하며 대학교 도서관으로 달려가 기계분야 역학책들을 들춰 보았습니다. 많은 어려운 공식들과 생소한 용어에 막막했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갖고 조급하지 않기로 각오했습니다. 필기전형은 문제당 푸는 시간이 1분이라 얇고 넓게 공부하기 위해 우선 기계자격증 책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이면 기계자격증도 취득하자고 다시 한번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기계분야의 생소한 역학들을 6개월 정도 부단히 공부해 일반기계기사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국○○발전에서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정말 기계관련 자격증 취득 시 기계직군에 응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을 칠 수 있다는 들뜬 생각에 기계관련 자격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절반이 기계분야라 당연히 기계관련 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한 소방설비기사(기계)가 없었습니다.

혹시 누락된 게 아닌가 희망을 가지고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 사규에는 소방설비기사(기계)는 기계관련자격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였습니다. 너무나도 큰 아쉬움에 다시 전화를 걸어 시험을 치게 해달라고 사정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줄기 빛이 된 첫 자격증, 소방설비기사(기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서부발전에서 채용공고가 떴습니다. 역시나 여기도 시험 못 치겠지 허탈한 심정으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기계직군 37명, 전기직군 37명 뽑는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와 많이 뽑네’ 생각하며 기계관련 자격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방설비기사(기계)가 있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자격이 부여되어 시험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과거는 실패가 아니라 오늘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다짐하면서 자기소개서에도 면접관이 질문할 것 같은 내용이 아니라 반드시 물어보게끔 만들고 싶은 내용이 되게끔 소개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1차 필기전형 및 일반상식, 2

차 논술 및 인·적성검사를 통과하여 3차 면접만 남았습니다.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니 가운데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유심히 보더니 “어! 화학과 졸업했는데 기계직군으로 지원했네요.”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하셨습니다. 속으로 쾌재를 외쳤습니다.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소방시설 공사일을 했었는데 펌프를 분해하고 배관 피팅을 하다 보니 저의 적성이 기계에 더욱 맞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에서도 소방일을 했었는데 발전설비와 배관이 혈관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유체와 화학물질이 주입되는 것을 보면서 화학과 기계를 두루 공부한 바탕으로 업무를 보다 잘 습득하고 적응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다소 담대하게 대답하자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른 지원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느 듯 면접이 끝나고 정중히 인사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한결 홀가분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 소지품을 챙겨 화장실에 들렀는데 조금 전 가운데 앉은 면접관과 마주쳤습니다. 인사하고 나오려는데 저를 기억하셨는지 면접관이 “우리회사는 기계도 필요하고 화학도 필요해요” 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전공자라는 ‘약점’은 오히려 현재 나의 ‘큰 강점’이 되다

그렇게 2년 반 정도 취업준비 기간을 마감하고 한국서부발전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비전공자로 기계직군으로 입사해서인지 기계업무에 역량이 떨어질 거란 무언의 선입견과 근무하고 싶은 희망부서 배치에 여러번 미끄러지는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나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곰곰이 고민하면서 화학, 기계뿐만 아니라 전기를 두루 공부하여 안전관리자로서 길을 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한국서부발전의 여러 사업소 중 하나인 평택발전본부에서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해오는데 2018년 12월에 한국서부발전의 주 사업소인 태안발전본부에서 중대재해(고 김용균 사망)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심각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대거 안전조직이 재편성되면서 태안발전본부 내 안전팀장으로 발령받고 현재 사업소내 법정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들과 지속적 소통과 토론중심의 안전교육 시행, 안전시설 보강 및 제도개선 등에 힘씀으로써 다행히 그후로 지금까지 담당 사업장에서는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역량을 향상코자 주말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한국기술교육대학원 안전환경공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무엇보다 올해 초에는 120회 기계안전기술사와 67회 위험물기능장을 취득하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처음 취득한 소방설비기사(기계)가 막막했던 취업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줄기 빛이 되었다면 안전업무를 담당하면서 공부하여 취득한 기계안전기술사나 위험물기능장은 광활한 대양을 향해함에 있어 네비게이션 같은 역할로써 실질적 안전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더욱 업무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준 자격증입니다.

“앞으론 더 이상의 불행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회사를 구현하는데 안전업무의 외길 인생을 경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격증 도전으로 배움의 모범이 되는 교사

박성호 /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



기계공학 전공자가 자동차과 교사로 정착할 수 있는 발판

저는 서울에 있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자동차정비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2000년도 2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종합고등학교에 자동차과 교사로 임용이 되어 처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새내기 선생님이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했던 학생들을 저 역시 열정을 가득 안고 교단에서 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배운 전공이 기계공학이라 자동차에 대한 지식과 기능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자동차 정비 실습 시간만 되면 저는 학생들 앞에 서는 것이 부담이 되었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깊게 빠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때 생각난 것이 대학 때 취득했었던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와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배운 전공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국가기술자격증 접수 일정을 살피고, 자동차정비기사 필기시험에 접수했습니다. 낮에는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밤에는 교무실에 남아 자동차정비기사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한지 두 달 만에 자동차정비기사 필기에 필요한 자동차기관, 자동차채시, 자동차전기 등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고,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정비기사 실기는 학생들과 늦게까지 남아서 함께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한 번에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를 하면 할수록 역시 실기는 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합격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기 시험장에서 제가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생들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임의로 고장 난 엔진을 수리하고 엔진에 시동이 걸렸을 때 짜릿한 기쁨을 맛보았고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과 교사가 된지 1년 반 만에 자동차 관련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부했던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학생에게 인정받는 교사가 될 수 있게 한 자신감

자격증은 저에게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자동차 분야는 계속 발전하기에 자동차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재의 자동차기술은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기술을 넘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자동차를 가르칠 때에는 가솔린 엔진이 기화기 타입의 엔진이었고, 제어방식이 기계식으로 작동되는 엔진을 교과에서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 전자제어 엔진으로 교과서 및 교육내용이 변경되었고 자동차정비기능사 시험 문제도 최신 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나태한 마음으로 학생들 앞에 서면 안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고 ‘학생들은 내가 평가를 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평가를 받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교원평가제도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사를 평가하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배제하더라도 자동차기술과 기능 면에서는 최고의 선생님이 되고자 굳은 결심을 했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정비기능장과 차량기술사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동차정비기능장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기에 합격했습니다. 실기는 자동차정비 기능인재반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자동차의 구조 및 정비 방법, 회로 분석 및 수리 등을 학생들과 밤늦게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기술

과 기능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동차과 교사가 된지 7년 만에 자동차정비기능장에 합격하였고 학생들에게도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새 학기에 새로운 교과를 배정 받으면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으로 차체수리기능사와 자동차보수기능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우리 과에도 제가 늦게까지 남아 자동차 이론 공부 및 정비 실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저의 노력들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차량기술사 도전과 합격이 만든 자부심

‘오리 떼가 나는 것은 그 우두머리의 울음소리 때문이 아니고 우두머리가 먼저 날기 때문이다.’라는 명언을 저는 제 교직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자격증 따라는 잔소리를 하기 보다는 제가 먼저 도전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느 날 저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차량기술사에 도전해 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차 시험인 논술 형식의 필기시험도 어려웠지만 기술사 시험 특성상 2차 면접 시험은 더욱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자동차의 설계, 평가, 제작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하는 것은 시간 소요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나약함을 견뎌내야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2차 시험은 여섯 번이나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 했지만 될 때까지 해보겠다는 오기가 생겼고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과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자동차 최신기술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일곱 번 만에 합격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자동차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쓸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자동차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왜 이 기술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어 뿌듯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기술사를 취득하신 분들과의 모임을 통해 미래 자동차 개발에 대한 내용

을 심도 있게 나누기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도움을 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8년 전 경기도에서 서울에 있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로 옮겨 새로운 터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에는 전공 교과를 가르치고 밤에는 2학기에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과 자동차정비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차정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서울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받아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우리 학생들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년 전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당시 학생들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던 새내기 교사에서 이제는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과 기능을 바탕으로 학생들 앞에 당당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와 같이 ‘새로운 분야에 끊임없는 열정으로 도전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라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애들아! 선생님과 함께 자격증 공부하자!



너비니아와 솔모르네

이영운 / 한국국제협력단



세네갈에서 느낀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축하합니다. 어떻게 한 번에 합격하셨어요?”

“운이 좋았나 봅니다.”

“능력이 뛰어난 분들도 여러 번 도전해야 겨우 합격하는데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시니!”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러 갔더니, 창구 직원이 건네는 말이다. 나는 석 달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는 중등교장을 마지막으로 40여년의 교육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을 하고,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교육정책자문관으로 선발되어, 아프리카 세네갈 교육부에서 2년간 파견 근무를 했었다. 나이가 많은 편이라 설, 명절이 돌아오면 젊은 봉사단원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대접하곤 했었다. 교육부 현지인 친구들도 집에 자주 찾아왔다.

두 번의 실패, 합격의 밑거름이 되다

한 해는 설 때 세네갈 다카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단원들과 다른 자문관들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집으로 초대했다. 전날 시장에 가서 소고기, 생선, 마늘, 파, 콩나물 등 많은 음식 재료를 사왔다. 그 전에 아는 한인을 통해서 떡국과 미역 등을 사두었다. 10여명의 손님들이 찾아왔고, 떡국 등을 차려 대접했다. 그런데 떡국 맛이 이상했다. 거의 떡으로 쏜 죽 수준이었다. 나중에 집사람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설명했더니, 떡을 마지막에 넣었어야 했는데 나는 처음부터 넣어서 끓였기 때문에 이상한 떡국이 되었던 것이다.

또 한 번은 제주도에서 흔히 먹던 고기국수를 대접한다고 자문단을 집으로 초청했다. 세네갈은 무슬림이 95%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다. 주로 양고기와 소고기를 먹는다. 결국 마트에서 수입 베이컨을 사다가 육수를 내었다. 그런데 국수가 푸석거리고 덜 익은 밀가루 맛이 그냥 배어있었다. 전화로 집사람으로부터 또 핀잔을 받았다. 국수는 세 번 정도 끓을 때마다 찬물을 부어주면서 익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혼자 하는 자취 생활도 처음이고, 요리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매번 실패한 음식 대접에 항상 죄송함을 느꼈다. 설 명절에 죽이 되어 버린 떡국, 설익은 국수, 물이 맞지 않은 밥, 항상 같은 찌개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던 시절, 너무

힘들고 슬펐다. 또 가장 필요한 김치조차 담글 줄 모르니 식생활이 엉망이었다. 오랜 해외 생활을 하면서 조리 기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기회가 닿으면 제대로 익혀 보고 싶었다.

주경야독으로 합격한 필기시험

귀국하게 되자, 우선 조리학원을 찾아갔다. 가장 기본적인 음식과 반찬 몇 가지를 익혀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학원에 가보니 기본 요리 과정은 없었고 모두가 기능사 또는 취업 전문가 과정뿐이었다. 그래서 기능사 양성과정에 등록했다. 30여 명이 등록했는데, 대부분이 여성이고 남자는 나와 또 한 분, 딱 둘이다. 내가 가장 연장자다.

기능만 배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론을 우선 익혀야 한다고 했다. 내용은 식품 위생론과 법규, 식품 위생 및 공중 보건학, 식품학, 조리원리 및 원가계산 등이다. 이젠 기억력과 순발력 그리고 학습 능력도 한참 떨어져서 필기시험에 두 번 응시하겠다고 2회의 원서와 응시료를 지불했다. 정말 오랜만에 다시 교재를 보며 열공했다. 어떤 때는 새벽까지도 불을 켜고, 또 출장으로 서울에 갔다 올 때는 비행기에서도 교재를 펴고, 지하철에서도 책을 옆에 두어야 불안하지 않았다. 서점에 가서 별도의 교재를 사오기도 하고, 기출문제집을 구해다 익히기도 했다. 운이 좋아선지 가장 좋은 성적으로 첫 도전에 합격했다.

본격적인 요리의 시작

이젠 요리 기능과 실기를 익혀야 했다. 한식 조리의 가장 기본은 무 채 썰기다. 가늘고 일정하고 예쁘게 썰어야 하는데, 들쭉날쭉 굵고 가늘고 엉망이다. 하루에 2가지씩 매일 실습했다. 56 가지 요리를 익혔다. 오이선, 어선, 육원전, 십산적, 너비아니, 칠절판, 화전, 매작과, 배숙 등 대부분 생소한 이름과 메뉴들이었다. 그 사이에 세 번이나 손가락을 베어 소위 선혈이 낭자한 과정을 겪기도 했다.

매일 칼, 도마, 밥솥, 냄비, 각종 식기류를 큰 에코백에 담고 학원과 집을 걸어서 오갔다. 20분 정도의 거리여서 운동 겸 그래도 괜찮았다. 조리사 복장을 갖추고 실기 시험에 응했을 때의 두려움과 또 경건함을 잊을 수 없다.

어쨌든 국가기술자격증을 딴 기쁨은 남다르고 뿌듯했다. 이번에는 양식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한식이 가장 어렵고 양식은 쉽다고 하는데 나는 양식이 오히려 더 힘들어 보였다. 쉬림프 카나페, 피쉬차우더 스프, 스파게티 까르보나라, 솔모르네, 뭉니엘, 치키 알라킹, 바비큐 폭찹 등 33 가지 요리의 레시피를 익히고 순서에 맞게 잘 조리해야 한다.



첫 실패를 맛보다

책으로 익히고, 인터넷도 헤집고, 동영상도 보면서 실습도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쉽지 않았다. 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또 아주머니들은 역시 잘 한다. 나는 진도 따라가기가 언제나 버거웠다. 원장님은 나를 특별히 배려해 세심히 가르쳐 주셨다. 발표 후에 원장님은 전체적으로 양식 합격률이 극히 저조하다고 했다면서 나를 위로했다. 세 차례의 도전 끝에 드디어 양식조리사 국가자격증도 획득하게 되었다. 이왕 시작했으니 조금 더 욕심을 내보기로 했다. 중식이다. 한식, 양식에 익숙해져서인지 중식 자격증은 한 번 도전해서 합격했다.

전과는 달라진 나의 일상

이제는 죽도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밥도 쌀의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비율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스페니쉬 오믈렛도 월도프 샐러드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유산슬과 유니짜장도 능숙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인지 집 사람은 수시로 자격증 있는 사람이 집 음식도 해야 한다고 성화다.

나는 다시 동티모르 교육부 교육행정자문관으로 선발되어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제는 해외 생활에 대한 기대도 결기도 든든했다. 봉사단원들과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음식과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맛보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티모르는 우리 상록수 부대원들이 독립의 기반을 다지다가 다섯 분이 산화하기도 했던, 2002년 독립한 최신행국이다. 동티모르 교육부에 자문관으로 봉사하면서 거의 매주 시장을 보고 김치도 담그고, 요리도 하고 봉사단원과 자문단들도 초대하여 전보다는 안정되고 즐겁고 유쾌한 자취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모두 한식, 양식, 중식, 세 가지 조리사 기능을 익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조금 큰 소망에 가득 차 있다. 작은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또 앞으로 요리기능을 더 열심히 잘 익혀서 가정과 사회와 세계에 맛있는 우리 음식을 충분히 알리고 제공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